

-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

활 동 결 과 보 고 서

본 자료는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6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경 상 북 도 의 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목 차

I. 개	요	1
1.	특별위원회 구성	1
2.	활동목적	2
3.	활동기간	3
4.	활동내용	4
II.	주요 활동실적	5
1.	총괄	5
2.	활동 상황일지	5
3.	주요 활동내용	7
4.	주요성과 및 제언	10
III.	참고자료	11
1.	주요 활동 사진	12
2.	언론 보도 사항	16
3.	결의안 및 공동성명서	49
4.	통합공항 이전 추진상황	55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활 동 결 과 보 고 서

I. 개 요

1. 특별위원회 구성

○ 구성취지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과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의 통합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한편 이전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구성경위

-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18.9.13.) 구성 결의안 의결
-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18.9.13.) 위원 선임(9인)

○ 구성현황 : 8인(미래통합당 6, 더불어민주당 2)

직 위	의 원 명	지 역 구	비 고
위 원 장	홍정근	경산1	미래통합당
부위원장	박채아	비례	미래통합당
위 원	김득환	구미4	더불어민주당
”	김봉교	구미6	미래통합당 (‘20.1.13 의원직 상실)
”	김수문	의성2	미래통합당
”	박창석	군위	미래통합당 (前 위원장, '19.9.13~'20.2.5)
”	윤승오	비례	미래통합당
”	윤창욱	구미2	미래통합당
”	정세현	구미1	더불어민주당

○ 활동지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수석전문위원 : 김홍석

- 전 문 위 원 : 서성백

- 직 원 : 장인석, 구미정, 최지근 주무관

○ 정책지원 : 입법정책담당관실(농수산건설지원팀)

- 입법정책담당관 : 박충근

- 팀 장 : 강창모

- 직 원 : 권중섭, 안성재 주무관

2. 활동목적

○ 대구국제공항을 영남권 신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려는 계획이 중앙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 방침으로 인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무산 되어, 정부에서는 영남권 신공항 대안으로 대구공항통합이전 방침을 정하고 지난 2016년 7월부터 지역의 새로운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후보지를 물색한 결과 2018년 3월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2곳이 선정되었음.

○ 이에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시 관문공항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공항시설의 규모 확보와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 시설을 비롯한 관련 인프라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확대 등 대구 공항 통합이전의 핵심적인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도의회 차원의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의 통합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이전 주변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3. 활동기간 : 2018.9.13. ~ 2020.6.30.

4. 활동내용

- 통합공항 이전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계획 업무보고
(공항추진기획단)
- 통합공항 이전 주요현안 및 이전주변지원 지원계획 수립 추진
등 업무보고(통합신공항추진단)
- 주민투표 결과 및 선정이후 추진상황 업무보고(통합신공항추진단)
- 통합공항 이전지 결정 및 공항건설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 통합공항 사업 원만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대구시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와 협력
- 통합공항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추진의지 결집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정부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 발표에 따른 즉각적 대응

II. 주요활동실적

1. 총 괄

☐ 회의 개최	: 7회
☐ 의안	: 1건
☐ 성명서 발표	: 2회
☐ 발언	: 2회
☐ 인터뷰	: 2회

2. 활동 상황일지

☐ 위원회 회의 개최

구분	일시	장 소	참석인원	내 용
제1차	2018.09.13.	건설소방 회의실	9명	·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 선출
제2차	2018.10.05.	건설소방 회의실	7명	· 업무보고(공항추진기획단)
제3차	2019.02.12.	건설소방 회의실	8명	· 업무보고(공항추진기획단)
제4차	2019.03.12.	건설소방 회의실	7명	· 통합공항 이전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
제5차	2019.09.02.	건설소방 회의실	8명	· 업무보고(통합신공항추진단)
제6차	2020.01.29.	건설소방 회의실	7명	· 업무보고(통합신공항추진단)
제7차	2020.03.30.	건설소방 회의실	8명	· 위원장 선출

☐ 의안

의안 번호	의결일	의안명	발의자	내 용
185	2019.03.25.	통합공항 이전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위원장	· 국방부가 대구시의 이전사업비 산출을 문제 삼아 이전지 결정을 미루고 있어, 담보상태에 빠져 있는 통합공항 이전사업의 조 속한 추진을 촉구

□ 성명서 발표

일시	장소	참석자	내 용
2019.3.21.	대구시의회	○ 16명 - 대구 8 - 경북 8	· 경북도의회 공항특위 「통합공항 이전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성명서 대구 시의회와 공동성명서 발표
2019.7.11	경북도의회	○ 12명 - 대구 5 - 경북 7	· 영남권 신공항 정치적 이용 규탄을 위한 『대구광역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공동 성명서 발표

□ 발언

일시	종류	발언자	내 용
2019.3.21.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박창석 위원장	·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촉구
2020.2.25.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박창석 위원장	·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항이전사업 추진 촉구

□ 인터뷰

일시	언론사	참석자	내 용
2019.03.18.	현대HNC 새로넷	박창석 위원장	· 통합신공항 사업추진의 조속한 추진 입장 피력
2019.08.01	대구일보	박창석 위원장	· 성공적인 공항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 노력

3. 주요 활동내용

□ 제1차 회의(제303회 임시회)

- 일시 및 장소 : 2018. 9. 13.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출석위원 : 9명
- 의사일정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의석 배정
- 선출결과 : 위원장 박창석, 부위원장 박채아

□ 제2차 회의(제304회 제1차 정례회)

- 일시 및 장소 : 2018. 10. 5.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출석위원 : 7명
- 주요내용
 - 통합신공항 이전 개요 및 추진현황 업무보고(공항추진기획단)

□ 제3차 회의(제306회 임시회)

- 일시 및 장소 : 2019. 2. 12.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출석위원 : 8명
- 주요내용
 - 일반현황 및 통합신공항 이전 추진현황 업무보고(공항추진기획단)

□ 제4차 회의(제307회 임시회)

- 일시 및 장소 : 2019. 3. 12.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출석위원 : 7명
- 주요내용
 - 통합공항 이전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
 - 통합공항 이전지 결정 지연에 대한 우려 표명과 담보상태에 빠져 있는 통합공항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 현대HNC새로넷 인터뷰(박창석 위원장)

○ 일시 및 장소 : 2019. 3. 18.

○ 인터뷰 : 박창석 위원장

○ 주요내용

- 통합신공항 사업추진의 조속한 추진 촉구
-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속도감 있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정치적 입장을 떠나 상생발전 차원에서 지역 간 갈등 조정에 집중

□ 경북도의회·대구시의회 통합공항이전특위 공동성명서 발표(1차)

○ 일시 및 장소 : 2019. 3. 21. / 대구시의회

○ 참석자 :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8명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 특별위원회 8명

○ 주요내용

-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와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공동으로 성명서 발표
 - 통합신공항 사업을 정부가 신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 대구시 관계자들과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현안에 대해 토론

□ 경북도의회·대구시의회 통합공항이전특위 공동성명서 발표(2차)

○ 일시 및 장소 : 2019. 7. 11. / 경북도의회

○ 참석자 :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7명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 특별위원회 5명

○ 주요내용

-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와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공동으로 성명서 발표
 - 일방적인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기존에 합의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
- 경북도 공항추진기획단장으로부터 추진상황과 현안사항 보고 받은 후, 질의 및 토론

□ 제5차 회의(제310회 임시회)

○ 일시 및 장소 : 2019. 9. 2.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출석위원 : 8명

○ 주요내용

- 통합신공항 이전 추진현황 등 주요현안 업무보고(통합신공항추진단)
 - 이전사업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 군 공항 유치신청을 위한 주민투표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추진 경과
 - 통합신공항 연계 지역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제6차 회의(제313회 임시회)

○ 일시 및 장소 : 2020. 1. 29.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출석위원 : 7명

○ 주요내용

- 일반현황 및 2020년 추진현황·향후계획 업무보고(통합신공항추진단)

□ 제7차 회의(제314회 임시회)

○ 일시 및 장소 : 2020. 3. 30.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 출석위원 : 8명

○ 주요내용

-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 홍정근 위원장

* 2020.2.6. 박창석 공항특위 위원장 사퇴에 따른 후임 위원장 선임

4. 주요성과 및 제언

- 2018년 3월 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2곳이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종 이전부지 선정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점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
- 통합신공항 이전을 계기로 대구와 경북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유치경쟁을 벌이는 지역 간 의사소통 창구로써 역할을 맡아 갈등 조정 기능에 충실
- 특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의회는 부산 가덕도와 김해 신공항 사업추진이 다시 거론되는 정치적 상황과 대구시와 국방부 간의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건에서, 이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추진 촉구를 위한 「통합공항 이전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속도감 있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 또한, 대구시의회와 협력을 강화해 국토부와 국방부의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한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부진한 통합신공항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달하는 「경북도의회·대구시의회 통합공항이전특위 공동성명서」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함과 동시에 시·도민의 우려의 뜻을 전달하고 대변하는 역할 충실히 수행
- 국토부에 대해 통합신공항 계획에 대구경북의 항공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관문공항을 건설하고, 도로·철도망 확충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한편 국방부의 이전사업비 산출 요구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이전을 위한 토대 마련에 기여

Ⅲ. 참 고 자 료

1. 주요 활동 사진
2. 언론 보도 사항
3. 결의안 및 공동성명서
4. 통합공항 이전 추진 상황

1.주요 활동사진

□ 제1차 회의(원구성, 2018.9.13.)



□ 제2차 회의(업무보고, 2018.10.5.)



□ 제3차 회의(업무보고, 2019.2.12.)



□ 제4차 회의(업무보고, 2019.3.12.)



□ 현대HCN새로넷 시사토크쇼 ‘이슈엔 팩트체크’(위원장, 2019.3.18.)



□ 통합공항이전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식(2019.3.21.)



□ 김해신공항 재검토 철회촉구 공동성명서 발표식(2019.7.11.)



□ 대구일보 인터뷰(위원장, 201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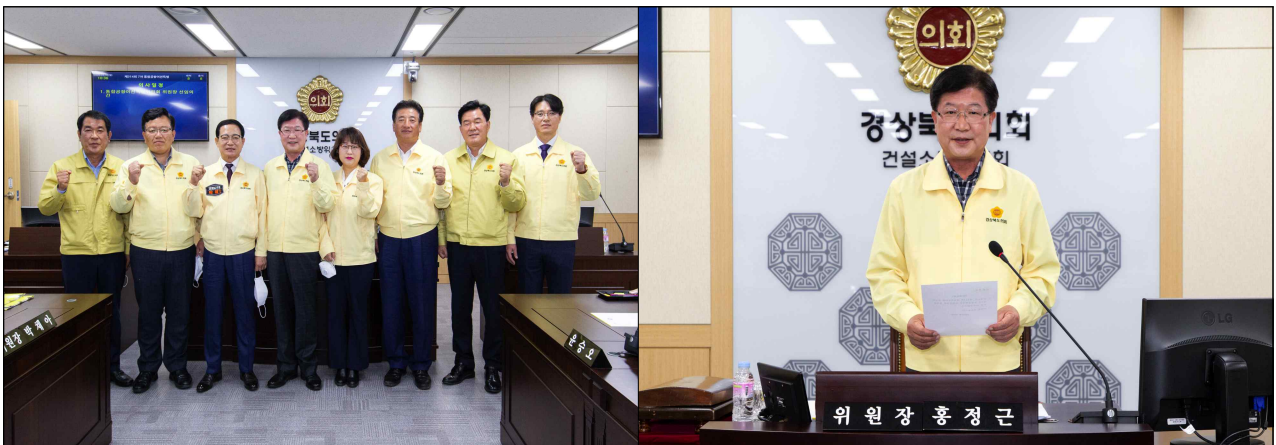
□ 제5차 회의(업무보고, 2019.9.2.)



□ 제6차 회의(업무보고, 2020.1.29.)



□ 제7차 회의(위원장 선임, 2020.3.30.)



2. 언론보도 사항

경북도민일보

2018년 09월 14일 금요일 003면 정치

제11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특별위원회 구성

지진대책특별위원회 등 5개

경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13일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 5개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원자력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승직(경주),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위원장 김영선(비례), 독도수호특위 위원장 김성진(안동), 지진대책특위 위원장 이철구(포항), 통합공항이전특위 위원장 박창석(군위)의원이 선출됐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피해대책 마련과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상 안전관리 체계를 상시 점검하는 등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

됐다.

위원장 박승직(경주), 부위원장 남용대(울진), 위원 조주홍(영덕), 신호광(경송), 김준열(구미), 배진석(경주), 박차양(경주), 이준우(영천), 최병준(경주) 등이다.

지진대책특별위원회는 지진발생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조기복구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체계적이고도 선제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장 이철구(포항), 부위원장 이선희(비례), 위원 조현일(경산), 황병직(영주), 김희수(포항), 김종영(포항), 한창화(포항), 김상현(포항), 박태춘(비례) 등이다.

김우섭기자 kws@hidomin.com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매일

2018년 09월 14일 금요일
002면 종합

도의회 5개 특위원장 선출

경북도의회는 13일 제303회 임시회를 열고 5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도는 이날 원자력대책위원회에는 박승직(경주),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장은 김영선(비례), 독도수호위원회장은 김성진(안동), 지진대책위원회장은 이철구(포항), 통합공항이전대책위원회장은 박창석(군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원자력대책 특위는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피해대책 마련과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지진대책 특위는 경주와 포항의 잇단 강진을 계기로 지진발생시 도민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조기복구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이창훈기자

5개 특위 구성...현안 해법 모색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열어
원자력·독도·지진대책 등 주력
대응 방안·종합 대책 수립 기대



박승직 위원장 김명선 위원장 김성진 위원장 이철구 위원장 박창석 위원장

경북도의회는 13일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 5개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원자력대책특위 위원장 박승직(경주), 저출산·고령화 대책특위 위원장 김명선(비례), 독도수호특위 위원장 김성진(안동), 지진대책특위 위원장 이철구(포항), 통합공항이전특위 위원장 박창석(군위)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피해 대책 마련과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상 안전관리 체계를 상시 점검하는 등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장 박승직(경주), 부위원장 남용대(울진), 위원 조주홍(영덕), 신효광(청송), 김준열(구미), 배진석(경주), 박차양(경주), 이준우(영천), 최병준(경주).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는 국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특히 농촌지역이 많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경북도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장 김명선(비례), 부위원장 임무석(영주), 위원 남영숙(상주), 임미애(의성), 안희영(예천), 이종열(영양), 박미경(비례), 김시환(칠곡), 고우현(문경).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한 헛된 야욕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고자 도민 대표기관인 도의회 차원에서 독도 수호를 전담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장 김성진(안동), 부위원장 박판수(김천), 위원 남진복(울릉), 나기보(김천), 김대일(안동), 김하수(청도), 방유봉(울진), 정영길(성주), 이재도(포항).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는 지진발생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조기복구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체계적이고도 선제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장 이철구(포항), 부위원장 이선희(비례), 위원 조현일(경산), 황병직(영주), 김희수(포항), 김종영(포항), 한창화(포항), 김상현(포항), 박태춘(비례).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도의회가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의 통합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한편 이전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장 박창석(군위), 부위원장 박재아(비례), 위원 김득환(구미), 윤창욱(구미), 윤승오(비례), 홍정근(경산), 김봉교(구미), 김수문(의성), 정세현(구미).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m

영남일보

2018년 09월 15일 토요일 004면 정치 대구신문

2018년 09월 14일 금요일 004면 정치



박승직(원자력) 김명선(저출산) 김성진(독도수호) 이철구(지진) 박창석(통합공항)



왼쪽부터 박승직, 김명선, 김성진, 이철구, 박창석 의원.

경북도의회, 독도수호 등 5개 특위 위원장 선출

도정 현안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경북도의회가 지난 13일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 5개를 구성했다.

특위 위원장은 △원자력대책특위 박승직(경주)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김명선(비례) △독도수호특위 김성진(안동) △지진대책특위 이철구(포항) △통합공항이전특위 박창석 의원(군위)이 선출됐다.

이번에 구성된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피해 대책 마련과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상 안전관리 체계를 상시 점검하는 등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는 국

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농촌지역이 많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경북도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한 야욕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독도 수호를 전담한다.

지진대책특별위원회는 지진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조기 복구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체계적이고도 선제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한다.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한편 이전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대응을 맡는다.

창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경북도의회 5개 특위 위원장 선출

경북도의회는 13일 제 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 5개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했다.

원자력대책특위 위원장은 박승직(경주),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위원장 김명선(비례), 독도수호특위 위원장 김성진(안동), 지진대책특위 위원장 이철구(포항), 통합공항이전특위 위원장에 박창석(군위)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남용대(울진)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주홍(영덕) 신효광(청송) 김준열(구미) 배진석(경주) 박차양(경주) 이준우(영천) 최병준(경주)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는 임무석(영주) 부위원장 남영숙(상주) 임미애(의성) 안희영(예천) 이종열(영양) 박미경(비

례) 김시환(칠곡) 고우현(문경) 등이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박판수(김천) 부위원장과 남진복(울릉) 나기보(김천) 김대일(안동) 김하수(청도) 방유봉(울진) 정영길(성주) 이재도(포항) 의원을 구성했다.

△지진대책특별위원회는 이선희(비례) 부위원장과 조현일(경산) 황병직(영주) 김희수(포항) 김종영(포항) 한창화(포항) 김상현(포항), 박태춘(비례) 의원이 참여한다.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박재아(비례) 부위원장과 김득환(구미) 윤창욱(구미) 윤승오(비례) 홍정근(경산) 김봉교(구미) 김수문(의성) 정세현(구미) 의원으로 구성됐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박승직 위원장



김영선 위원장



김성진 위원장



이칠구 위원장



박창석 위원장

경북도의회 특별위원장 선출 제303회 임시회·도정현안 다뤄

경북도의회가 13일 제303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룬 5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원자력대책특위 위원장 박승직(경주),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위원장 김영선(비례), 독도수호특위 위원장 김성진(안동), 지진대책특위 위원장 이칠구(포항), 통합공항이전특위 위원장 박창석(군위)의원이 선출됐다.

김진욱 기자 wook9090@idaegu.com

도의회, 도정현안 집중할 '특별위원회' 구성

5개 특별위원장에 박승직,
김영선, 김성진, 이칠구, 박창석

경북도의회는 지난 13일 제30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 5개를 구성했다.

5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박승직(경주) 원자력대책특별위원장 △김영선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장 △김성진(안동) 독도수호특별위원장 △이칠구(포항) 지진대책특별위원장 △박창석(군위)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장 등이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피해대책 마련과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상 안전관리 체계를 상시 점검하는 등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는 국가적으

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특히 농촌지역이 많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경북도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한 헛된 야욕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고자 도민 대표기관인 도의회 차원에서 독도수호를 전담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진대책특별위원회는 지진발생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조기복구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체계적이고도 선제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도의회가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한편 이전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김성용 기자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위한 시장·도지사 2차 교향군무가 이뤄진 16일 오후 군위군 우보면 신공항 후보지를 방문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정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김영만 군위군수 일행이 통합 신공항 이전을 환영하는 군위군 주민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동선기자 photokid@kbmail.com

“先 대구공항 통합 이전, 後 가덕도공항 못 박자”

이철우 지사, 영남권 5개 시·도지사 논의 모임 추진
권영진 시장도 “통합신공항은 대구와 경북의 미래”
부산·울산·경남단체장들 “김해신공항 백지화하라”

영남지역의 새로운 관문공항으로 설정된 ‘동남권신공항’ 건설을 두고 촉발된 대구와 경북, 부산과 울산·경남간의 신공항 유치전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대구와 경북이 상생체제로 대구통합신공항 추진 의지를 확고하게 다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동남권신공항으로 결정된 김해공항 확장이 관련 공항 기능이 불가능하다며 국토교통부에 백지화를 요구하고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 재추진 의지를 드러내 우려를 낳고 있다.
대구·경북으로서는 후보지 확정만 남겨둔 통합공항 이전이 가로막힐 걸림돌을 만났기 때문에 농후해진 셈이어서 비상이 걸렸다. 자칫 두 지역의 오랜 갈등을 부활하기 위해 결정된 김해공항 확장이 백지화할 경

우 대구통합공항 이전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각각 추진되게 돼 또다시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한 지역갈등이 재연될 우려가 번하기 때문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16일 교향군무를 통해 지역의 최대 상생과제인 통합 신공항 추진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대구시장이 된 이 지사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먼저 확정되면, 부산이 가덕도 신공항을 만드는 것을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이 문제를 검토하는 뜻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전했고, 김 지사가 이를 모임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대구·경북이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한 것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무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영남권에 관한 공항을 하나만 만들자고 고집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대구통합공항은 지역산업을 일으키는 물류공항이 되어야 한다”며 “군사공항 통합이전을 추진하는 공주와 수원에서는 시민반대로 걸림돌이 있지만, 경북은 공항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며 유치전까지 벌이고 있어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전혀 걸림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장관도 훈련을 마칠 것 같 수 있는 최신식 공항을 만드는 데 늦출 이유가 없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이 다시 일어선다면 통합공항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경북도 공무원과 가진 대화를 통해 “일부 대구시민이 군공항만 옮기자는 요구를 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잘라 말했다. 또 “통합신공항은 대구와 경북 미래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라”면서 “진도가 많이 나가고 있

다. 어려운 일이지만 조만간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그는 “대구와 경북을 합쳐놓고 보면 인구 550만의 매력적인 시장이 되고 공항과 항만이 있는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된다”며 “행정통합은 당장 어렵더라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의 공동체를 염두에 둔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행정구역상 경북으로 간다고 대구에 공항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며 “세계적으로 도심 공항이 외국으로 나가면서 확장한다”며 “수도권과 연결하는 인프라만 염두에 두면 안 되고 대구 지하철을 경산 전량까지 연장하는 등 대구·경북이 하나의 경제권이 되는 인프라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항 이전 비용이 예초 6조3000억원보다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최종 후보지를 빨리 결정, 정확한 비용을 확정하고 대책을 논의하면 이 문제도 잘 풀릴 것”이라 전망했다. 두 단체장은 이날 오후 대구경북 통합공항 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과 군위군 우보면을 방문했다.

한편 부울경 시도지사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부·울·경 동남권관문공항검증단 검증결과 보고회’를 열고 김해신공항 추진계획 전면 백지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입장문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들은 “당초 국토부와 합의한 검증기준에 비해 국토부의 김해신공항은 안전, 소음, 확장성 등 동남권 관문공항 최소 요건 중 어느 것 하나 충족되지 못하는 불가능한 계획”이라며 “그런데도 강행하려는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을 때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토부는 부울경과 합의한 검증기준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검증과정에서 제출한 부실한 자료를 검증한 결과 안전하지도 않고, 소음은 한층 더 늘어나고 확장성은 전무했다”며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백지화하고 정책변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관계자는 “대구통합공항 이전과 김해공항 확장이 정부차원에서 결정된 것인 만큼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의지를 공식화한 부울경 시도지사의 의도가 평정하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창훈·이영민기자

경안일보

2019년 02월 19일 화요일 002면 종합

“대통령 약속대로 통합공항 빨리 추진해야”

박창석 경북도의원, 文대통령 신공항 발언 입장문 발표

“가덕도 신공항 발언 또 다른 결정 오해의 소지 충분
공약 지키고 지역갈등 조장하는 우 범하지 말아야”

“대통령이 약속대로 대구·경북 통합공항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경상북도의회 박창석 도의원(군위)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권 신공항 관련 발언에 대해 18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으로 이미 결정돼 추진되

고 있다”라며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부산에서 언급한 가덕도 신공항 발언은 속고 끝내 결정된 정부 약속에 대해 또 다른 결정을 내리는 듯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라며 “이는 정부의 신뢰를 저버리는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김해공항 확장이나 또



박창석 경북도의원

다른 공항이전 추진이든 정부의 크나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통합공항 이전이 대구·경북만의 문제인가”라며 반문하는 한편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 전계획으로 국방부가 이전비용을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하려는 대구시에 전가하는 것이 정부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과 약속한 정부 정책이 바뀌면 국민들은 누구를 신뢰해야 하며, 대한민국 미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며 “나라이름을 내세우는 대통령이 먼저 공약사항을 지켜나가고, 이미 결정된 신공항 정책에 또 다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재점화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진행 중인 통합공항 이전은 대구경북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대통령도 약속한 대구·경북 통합공항이전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촉구했다. 김구동 기자 ga7799@gailbo.com



권영진 시장·이철우 도지사, 신공항 후보지 나란히 방문

16일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위해 2차 일일 교환근무에 나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날 오후 대구·경북 통합공항 이전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공동 후보)과 군위군 우보면(단독 후보)을 차례로 방문했다. 양 시·도지사가 경북 군위군 우보면 신공항 후보지 앞에서 접근교통망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

이무열 기자 lmy4532@idaegu.com

日경북신문

2019년 02월 13일 수요일 002면 종합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활동 개시

경북도의회, 주요업무 보고·현안사항 질의...집행부와 다양한 방안 모색



대구국제공항과 K-2군공항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 주변 지역의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통합공항이전특별

위원회가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019년도 의정 활동을 개시했다.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12월 제3차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은 후,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통합공항이전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집행부와 모색했다.

특히 부산 가덕도와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이 다시 거론되는 정치적 상황과 대구시와 국방부 간의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건에서 이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집행부와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박창석 위원장은 “통합공항 이전 사업은 경북의 미래 청사진을 결정짓

는 매우 중대한 사업인 만큼 대구·경북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어 반드시 해결해 내야한다.”면서 “특별위원회가 각종 난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합공항이전사업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늘 도민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함께하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특별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2016년부터 본격화 된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 통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이전 주변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제303회 임시회 때 구성됐다. 위원장은 박창석(군위), 부위원장은 박재아(비례)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활동 기간은 2020년 6월30일까지다.

김영삼기자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특위 개시

주요업무 보고·종합적 지원방안 수립 등 만전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가 12일 제3차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가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19년도 의정 활동을 개시했다.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12일 제3차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다.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통합공항이전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집행부와 모색했다.

특히 부산 가덕도와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이 다시 거론되는 정치적 상황과 대구시와 국방부 간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건에서 이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집행부와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도민과의 소통과 면밀한 현장 조사로 이전 주변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 대구시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통합공항 이전 추진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박창석 위원장은 “통합공항 이전사업은 경북의 미래 청사진을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사업인 만큼 대구·경북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며 “통합공항이전사업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늘 도민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함께 하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운영방안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제303회 임시회 때 구성됐다. 대구 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 지역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위원장은 박창석(군위), 부위원장은 박재아(비례)의원이 선출됐다. 활동 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다.

김구동 기자 ga7799@gailbo.com

경북도민일보

2019년 02월 13일 수요일 001면 종합

도의회 통합공항이전 특위 본격 활동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가 올해 첫 특위활동을 개시했다.

통합공항이전특위 박창석(군위)위원장은 12일 첫 회의를 열어 통합공항이전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집행부와 모색했다.

부산 가덕도와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이 다시 거론되는 정치적 상황과 대구시와 국방부 간의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건에서 이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집행부와 토론을 이어갔다. 또 도민과의 소통과 현장의 면밀한 조사로 이전 주변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하고, 대구

시와의 적극 업무협의를 통해 통합공항이전 추진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통합공항 이전사업은 경북의 미래 청사진을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사업인 만큼 대구경북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어 반드시 해결해 내야한다”면서 “특별위원회가 각종 난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합공항이전사업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늘 도민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함께 하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우섭기자 kws@hidomin.com

경북연합일보

2019년 02월 19일 화요일 002면 종합

박창석 도의원 “대통령도 약속한 대구통합공항이전 조속 추진해야”

대통령 말에 대한 입장 발표
“이미 결정...신 공항 정책에 또 다시 지역갈등 조장 안돼”

경북도의회 박창석 의원(군위·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대한 입장’을 18일 발표했다.

박 의원은 입장문에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십여 년 간의 논란 속에 김해공항확장과 대구공항통합 이전으로 이미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면서 “대통령이 부산에서 언급한 가덕도 신공항 발언은 속고 끝에 결정된 정부의 약속에 대해 또 다른 결정을 내리는 듯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이는 정부의 신뢰를 저버리는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또 다른 공항이전 추진이든 정부의 크나큰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통합공항이전이 대구 경북만의 문제인가? 나라를 지키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전계획으로 국방부에서 이전비용을 기부 대 양여 방식



으로 하려는 대구시에 전가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과 약속한

정부의 정책이 바뀐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신뢰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나라다운 나라를 내세운다는 대통령이 먼저 공약사항을 지켜나가고, 이미 결정된 신공항 정책에 또 다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재점화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미 진행 중인 통합공항이전은 대구경북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에, 대통령도 약속한 대구통합공항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호 기자 lih@kbyun.co.kr

도정질문·대구공항 이전촉구 결의안 채택 예정

도의회, 12~25일 임시회

출자·출연기관 업무보고 등

경상북도의회가 오는 12~25일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연다. 도정질문, 민생 조례안, 대구공항이전 촉구 결의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당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6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 일선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함은 물론 도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12일은 박재아(비례), 박창석(군위), 김시환(칠곡2) 의원이, 13일은 이재도(포항7), 박영환(영천2), 김상조(구미3)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선다. 도지사와 교육감 등 집행부 간부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질문 및 답변은 도내 방송사(TBC, MBC, 케이بل방송)를 통해 TV로 생중계 된다.

임시회 기간 처리 의안은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조례안' 등 주로 생활밀착형 민생안건이다. 의원발의 조례 7건, 도지사 제출 조례 3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13건을 소관 상임위원으로 깊이있게 심사한다. 회기 마지막날인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또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사업들이 본격 시작되는 3월을 맞아 각 상임위원별로 주요 기관과 기업을 둘러볼 계획이다. 예로사항과 현안 파악 등 현지확인도 실시한다.

특히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는 정

부에 통합공항 이전지를 조속히 결정하고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오는 21일 대구시의회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등 8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후속으로 실시된다. 공공기관 경영혁신이 도민생활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기관장 경영의식, 투명성 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또 도민의 복리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주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업하고 소통하는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간담회도 실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토론

회, 문화환경위원회는 문화재단 설립 및 2019년 엑스포 추진계획 관련 간담회, 농수산위원회에선 청년농업인 4-H 연합회와의 만남을 통해 농업 현안사항을 듣는다.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형 국책사업 예타면제 탈락, SK 하이닉스 유치 무산 등 소위 경북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경북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적극적인 마인드와 진취적인 사고로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밝힐 예정이다. 또 최근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국가적 재난으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도 주문할 예정이다.

김구동 기자 ga7799@gaibo.com

경북일보

2019년 03월 12일 화요일 005면 종합

‘경북패싱’ 위기…대구공항 이전 서둘러야

도의회, 오늘부터 임시회 돌입

통합공항 결정 촉구 결의안 채택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 등 심의

경북도의회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열어 도정질문, 민생 조례안, 대구공항이전 촉구 결의안,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당면 안건을 처리한다.

도정질문에 6명의 의원이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선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함은 물론 도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12일 박재아(비례), 박창석(군위), 김시환(칠곡) 의원이, 13일 이재도(포항), 박영환(영천), 김상조(구미) 의원이 각각 도정질문을 실시한다.

또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조례안' 등 주로 생활밀착형 민생안건으로 의원발의의 조례 7건, 도지사 제출 조례 3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13

건을 심사한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원별로 주요 기관과 기업을 둘러보며 예로사항과 현안 파악 등 현지확인도 실시한다.

특히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에 통합공항 이전지를 조속히 결정하고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오는 21일 대구시의회와 공동으로 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토론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문화재단 설립 및 201

9년 엑스포 추진계획 관련 간담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청년농업인 4-H 연합회와의 만남을 통해 농업 현안사항을 청취한다.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형 국책사업 예타면제 탈락, SK 하이닉스 유치 무산 등 소위 '경북패싱'이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경상북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적극적인 마인드와 진취적인 사고로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한다.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m

경안일보

2019년 03월 19일 화요일 002면 종합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

건설특별 위원 7명 전원 발의... 국회·중앙정부에 이송 계획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18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발의했으며, 대구·경북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역의

100년 미래가 걸려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정부가 조속하고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오는 26일 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 국회와 중앙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또 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는 21일 대구시의회에서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위와 공동으로 대구국제공항 통합공항이전을 통한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

홍인표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

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신공항 건설이 흔들림 없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며 "통합신공항이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관문공항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백영준 기자 by8085@naver.com

대구공항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

경북도의회는 12일 임시회를 열고 25일까지 도정 질문과 민생 조례안 심사, 대구공항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 결산 감사위원 선임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도정질문은 12일 박채아(비례)·박창석(군위)·김시환(칠곡) 의원, 13일 이재도(포항)·박영환(영천)·김상조(구미) 의원이 나서 현안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도의회는 또 경북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7건과 도지사 제출 조례 3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등을 상임위별로 심사한 뒤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통합공항이전특위는 21일 대구시의회와 공동으로 정부에 이전지의 조속한 결정과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성명서를 발표한다.

김우섭기자 kws@hidomin.com

대구일보

2019년 03월 19일 화요일 004면 정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 조속추진해야”

대구시의회 특별위원회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표)가 18일 제265회 임시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발의했다.

대구·경북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우리 지역의 100년 미래가 걸려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정부가 조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오는 26일 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 국회와 중앙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또 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는 21일 대구시의회에서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위와 공동으로 대구국제공항 통합공항이전을 통한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

홍인표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신공항 건설이 흔들림 없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며 “통합신공항이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관문공항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 채택

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 1차 회의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표)는 18일 제265회 임시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위 위원 7명 전원이 발의한 결의안엔 대구·경북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우리지역의 100년 미래가 걸려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정부가 조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오는 26일 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 국회와 중앙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특히 특위는 오는 21일 대구시의회에서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위와 공동으로 대구국제공항 통합공항이전을 통한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할 예정이다.

홍인표 위원장은 "통합신공항 건설이 흔들림 없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며 "통합신공항이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관문공항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철기자 khc@hidomin.com**

日刊경북신문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위 건설사업 조속추진 결의안 채택

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 발의
"역량집중 흔들림없는 시행을"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18일 제265회 임시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발의했으며 대구·경북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우리지역의 100년 미래가 걸려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정부가 조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오는 26일 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

정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 국회와 중앙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또한 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는 오는 21일 대구시의회에서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위와 공동으로 대구국제공항 통합공항이전을 통한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

홍인표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신공항 건설이 흔들림 없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폭을 넓혀 나갈 것이며 통합신공항이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관문공항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 jebo777@hanmail.net

2019년 03월 19일 화요일 002면 종합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표)는 18일 오후 열린 제265회 임시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발의했으며 대구·경북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100년 미래가 걸려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정부가 조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오는 26일 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 국회와 중앙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는 21일 대구시의회에서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위와 공동으로 통합신공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있는 모습.

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

홍인표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신

공항 건설이 흔들림 없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며 "통합신공항이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관문공항으로써 그 역

할과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구기자

“정부는 대구 통합신공항 조속 추진하라”

대구시의회 특위 결의안 채택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표)는 18일 제265회 임시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

회 위원 7명 전원이 발의했으며 대구·경북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역의 100년 미래가 걸려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정부가 조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오는 26일 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되면 국회와 중앙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는 오는 21일 대구시의회에서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위와 공동으로 대구국제공항 통합공항이전을 통한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경북연합일보

2019년 03월 19일 화요일 006면 경북

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조속 추진 결의안 채택

26일 임시회 본회의 상정 예정 경북도의회와 공동 대응 방침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18일 제265회 임시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

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발의했으며, 대구·경북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우리지역의 100년 미래가 걸려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정부가 조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오는 26

일 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 국회와 중앙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또한, 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는 오는 21일 대구시의회에서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위와 공동으로 대구국제공항 통합공항 이전을 통한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

홍인표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신공항 건설이 흔들림 없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폭을 넓혀 나갈 것이며, 통합신공항이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판문공항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곤 기자 kvg@kbyn.co.kr

영남일보

2019년 03월 19일 화요일 005면 정치

최정호 국토장관 후보자 “김해신공항 건설 기존案대로 추진”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서 소신 밝히

정부가 최근 다시 논란이 불거진 영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 ‘김해공항 확장’과 ‘통합대구공항 이전’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부산·울산·경남(PK) 광역단체장들이 김해공항 확장의 부당성을 고리로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추진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대구경북 정치권

도 “확정된 국가 계획을 지역 이기주의로 변동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함께 기존 정책을 지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영남권 신공항 논란과 관련, 정부 안에 따라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부울경 가덕도 추진 반대 표명 TK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대응

“기존 정책 사수에 힘 합치기로”

통합대구공항 조속 추진 촉구 시의회 21일 공동성명서 발표

“영남권 5개 지자체장의 합의에 따라와 국 전반기가 가덕도를 포함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김해공항 입지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할 만큼 현재 김해신공

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PK 정치권에서 김해공항 확장 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은 국회에서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주호영 한국당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대구 수상구)를 비롯해 박대훈 대구시당위원장(대구 달서구갑), 장석춘 경북도당위원장(구미), 김상훈(대구 서구)·송인석(김천)·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신공항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PK가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지역 이기주의를 내세워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정책을 심각하게 지연시키고 있다”며 “대구경북은 기존 정책을 지키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통합대구공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한다.

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인표)는 18일 특위 1차 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 신공항특위는 지난 12일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석)와 공동으로 오는 21일 대구시의회에서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hchoon@yeongnam.com
임성수기자 slshoon@yeongnam.com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통합신공항, 정부 조속하고 책임있게 추진 '강력 촉구'
도의회 특위와 21일, 공동 성명서 발표 예정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65회 임시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가 제1차 회의를 열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65회 임시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발의했으며, 대구·경북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지역의 100년 미래가 걸려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을 정부가 조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오는 26일 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 국회와 중앙 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특히 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는, 21일 대구시의회에서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위와 공동으로 대구국제공항 통합공항이전을 통한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

홍인표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신공항 건설이 흔들림 없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며 "통합신공항이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관문 공항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每日新聞

2019년 03월 22일 금요일 001면 종합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 특위 성명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는 21일 정부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〇3면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경북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100년 미래가 걸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정부가 하루빨리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 특위는 공동 성명에서 “영남권 신공항은 2015년 1월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유치경쟁을 중단하고 정부 선정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했고 다음 해 6월 국토교통부에서 김해공항 확장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으로 결론 내렸다”며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고,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을 지연시키는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이전절차를 적극 이행하라”고 말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imaeil.com

대구 미래 걸린 국가 프로젝트 'TK 패싱' 안 된다

'통합신공항·물산업·로봇산업' 정부 지원하라

대구의 미래가 걸린 국가 프로젝트가 줄줄이 추진 동력을 상실한 채 제자리걸음이다. 예산, 인사, 정책 전반에 걸쳐 TK 패싱이 심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한 대구 국가 프로젝트까지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은 지난해에서 올해로 밀렸고, 대구 물산업클러스터의 성패를 좌우할 한국물기술인증 설립 역시 지지부진하다. 대구 시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로봇산업의 성패도 결국 정부 욕심 의지에 달려 있다.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지원을 약속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꼭 막히기 시작됐다. 통합신공항의 출발점은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 때다. 이후 지난해 3월 예비 이전 후보지를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등 2개 지역을 압축하고 연내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1년 넘게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여기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무관심, 의지 부족이 맞물려 있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해 지난 2년간 침묵을 지켰던 문 대통령은 지난해 부산 방문에서 대구경북

文대통령 대선 후보 때 지원 약속 잊은 듯 이전사업비 합의에도 정부 의지 가장 중요

이 절대 반대하는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의 여지를 남겼다. 지부진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북병까지 만나면서 이미 정리됐던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까지 불거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위안은 대구시와 국방부가 지난 1년간 점예한 입장 차이를 보여줬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비' 문제가 가락을 잡았다는 것이다. 이전사업비 산정을 둘러싼 양측 갈등은 "개작적인 사업비"만 먼저 산정하고 최대한 빨리 부지 선정을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점진점을 찾았다. 이낙연 국

무총리가 올해 1월 말 권역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국무조정실이 나서 조정하도록 지시하면서 양측 협의에 가속도가 붙은 결과다. 이전사업비 문제는 가락을 잡았다고 하지만 이제 겨우 출발이다. 총리실이 전작에 나서 중재를 서둘러야겠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남아야 할 산이 많다"며 "이 시점에서 정부, 특히 대통령의 의지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반영할 수 있다면 최종 부지 선정을 단번에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준 기자 all4you@maeil.com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특위와 경북도의 통합공항 이전특위가 21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정부가 통합신공항 사업을 신속하고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aeil.com



대구 달성구 구지면 국가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매일신문 DB



2017년 현대로보틱스 대구 본사에서 열린 공식 출범식에서 윤종근 현대로보틱스 대표가 클린룸 로봇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물기술인증원 지부진

국내 물산업 매출액은 36조 344억원(2018년 기준)에 이르지만 국제적인 산업 경쟁력은 취약한 상황이다. 물산업 관련 사업체는 1만2천995곳이나 되지만 10인 미만의 영세 기업이 66%를 차지한다. 수출 비중도 전체 매출액의 4.8%에 그쳤다. 대구 물산업은 더욱 열악하다. 사업체 수 기준으로 전국의 3%에 불과하고, 매출액 50억원을 넘는 기업도 15곳이 전무다. 오는 7월 문을 여는 물산업클러스터는 지역 물산업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물 관련 기업들은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물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국가 수준의 검증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물산업 성장하려면 검증 제도 필요 국가산단 인근 '스마트워터시스템' 추진

세계 최대 규모의 물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은 환경청(EPA)이나 식품의약국(FDA) 등의 국가 인증을 통해 물산업을 주도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KC 인증, 산재품(NET)-신기술(NET) 인증 등이 있지만 공신력이나 인지도는 낮다. 국가 수준의 검증 제도도 마련되더라도 이를 수행할 한국 물기술인증원은 필수다. 물기술인증원이 물산업클러스터 내 시험장비를 활용, 국제 기준의 공인 인증을 한다던 국내 물기업의 품질 경쟁력이 크게 높아지고 해외시장 진출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물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물기업의 R&D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 성과를 국내외 시장에 지원할 정책적 관심도 절실하다. 젊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어

려움을 겪는 물기업을 위한 인력 육성 정책 발굴도 과제로 꼽힌다. 대구시는 내년까지 190억원을 투입해 펌프, 펌프 등의 시험을 위한 유체성능시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또 현재까지 물산업클러스터에 유치한 우수 기업 24곳을 기반으로 내년까지 5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특히 물 관련 엔지니어를 전략적으로 유치, 기업 집적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구시는 2023년까지 국가산단단지 인근 6만4천㎡에 '스마트워터시스템' 조성에도 나선다. 사업비 2천429억원이 투입될 이 사업은 ICT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해 유량과 수질을 원격 관리하는 '통합운영센터'가 중심이다. 장성현 기자 shjang@maeil.com

로봇산업 성패

국내 로봇산업은 아직 시장 형성 단계다. 로봇 생산액은 2017년 기준 4조9천950억원으로 전년(4조4천750억원)보다 11.6% 증가했지만 로봇산업 관련 사업체 중 97%는 중소기업이다. 로봇 매출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체가 절반이 넘는다. 대구 로봇기업은 161곳, 매출액은 6천647억원(2017년 기준)이다. 7대 특별·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이지만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성장이 더딘 주된 이유는 핵심 부품 개발 지연이다. 국내 로봇 부품 국산화율은 41.1%에 그친다. 특히 구동모터, 감속기 등은 전량 일본에서 수입한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려면 '로봇 혁신클러스터' 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로봇 혁신클러스터를 통해 엔지니어와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핵심부품 대부분 일본서 수입, 성장 더뎠다 의료 서비스용·섬유산업 특화 로봇 육성

로봇을 개발, 사업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발한 로봇 기술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생산 기업을 육성하도록 '첨단 제조로봇 실증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는 게 지역 산업계 지적이다. 급격하게 수요가 늘고 있는 의료 서비스 로봇 개발도 주요 과제다. 대구 청단의료복합단지 등 의료 인프라와 로봇산업을 연계한 '의료융합 콘텍츠산업 육성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제조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도 숙제로 꼽힌다. 로봇 기술은 전통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 환경을 개선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수작업에 의존하는 제품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 피닝 산업기능 로봇'을 육성할 기반을 구축하

고, 대구 주력 산업인 섬유산업에 특화된 로봇을 육성할 거점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조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체 유출이 심각한 성서산업단지를 '스마트산단'으로 변모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스마트산단이 조성되면 스마트공장 확산과 제조데이터센터 건립 등이 가능해지고, 산업단지에는 스마트창업센터 등이 구축될 수 있다. 김창호 대경로봇기업진흥원 회장(우아인엑스텍 대표이사)은 "국내 로봇산업은 연구개발 역량과 전문 인력 부족 등의 한계로 성숙기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장성현 기자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와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가 21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정부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신속추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 발표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대구경북시도의회 “통합공항 조속 추진” 성명

일각선 “여론 수렴 없어” 비판
시의원들도 이전 놓고 입장차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표)와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석)는 21일 시의회에서 통합대구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시·도의회 공동 성명에 앞서 지역민 의견 수렴 등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아쉬움을 남겼다.

시·도의회 공항특위는 성명에서 “대구경북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100년 미래가 걸려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정부가 조속하고 책임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영남권 신공항은 2015년 1월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유치 경쟁을 중단하고 정부의 선정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겠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고, 2016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김해공항 확장’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으로 결론을 내린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 또한 현 단계에서는 정확히 낼 수 없는 이전사업비 산출을 무리하게 요구하며 이전사업의 추진절차를

지연시켜오다, 최근에야 대구시와 합의점을 찾는 등 대통령 공약사업인 대구경북 통합공항 건설 사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며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의 통합신공항 추진에 대한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한 의심과 우려가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통합공항 계획에 대구경북의 항공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관문공항으로 건설하고,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공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도로와 철도망 확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동 성명서 발표에 앞서 양 시·도의회 특위 위원들은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대구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현안에 대한 토론회시간도 가졌다.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은 간담회 인사에서 “대구시의회는 홍인표 특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들이 통합공항 문제에 대해 아주 열정을 쏟고 있다. 대구공항 이전이 지지부진 늦어진 것에 대해 대구경북 시민들이 우리의 뜻을 분명히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지만, 지역민 의견 수렴 등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지역사회에서는 대구시가 통합공항 이

전 사업에 대해 일찌감치 공론화를 하고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사업이 훨씬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대신인 홍보를 위한 막대한 홍보비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 지적이 수 차례 나온 바 있다.

또 대구시의회 특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한 명도 없어, 특위의 주장이 전체 의원의 통일된 의견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온다. 시의회 특위 위원 7명은 전원이 한국당 소속이다. 경북도의회 특위의 경우 민주당 소속 도의원도 2명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시의회 특위 한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아직은 일부 시의원 사이에서 이견이 나오는 건 맞지만,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 등을 하는 시의원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해당 사업 관련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양 시·도의회 주장과 달리,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2016년 6월21일)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주의 사드 배치 발표에 앞선 같은 해 7월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지역 100년 미래 걸린 통합신공항, 조속 추진해야”

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 대정부 성명 발표 나서
“적극적 의지 필요…관문공항 건설 등 논의해야”

“대구통합신공항에 대한 엇갈린 여론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에 통합신공항 조기 추진에 강한 압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가 21일 대구시의회에 모여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대정부 성명을 통해 “대구·경북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100년 미래가 걸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정부가 하루빨리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영남권 신공항은 2015년 1월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유치경쟁을 중단하고 정부

선정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했고 다음 해 6월 국토교통부에서 김해공항 확장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으로 결론내렸다”며 “정부는 지난 십여 년간 영남권 신공항이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돼 국가 재도약 기회를 잃은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현 단계에서 정확히 산출할 수 없는 이전사업비 산출을 무리하게 요구하며 추진절차를 미루다가 최근에는 대구시와 합의점을 찾는 등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며 “국토부와 국방부의 미온적 태도로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한 의심과 우려가 확산하는 지역여론을 정부가 엄중히 받아들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가 21일 대구시의회에 모여 통합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고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을 지연시키는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이전절차를 적극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통합신공항 계

획에 대구·경북의 항공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관문공항을 건설하고, 정부는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도로, 철도망 확충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경북도민일보

2019년 03월 22일 금요일 005면 사회



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공항특위 관계자들이 통합신공항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통합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하라”

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 공항특위, 촉구 성명서 발표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21일 대구시의회에서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대구경북의 사활이 걸려있는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정부가 신속하고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는 정부가 대구경

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하고, 대구경북의 항공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관문공항 건설과 그에 따른 도로와 철도망 확충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도의회 특위는 이날 성명서 발표에 앞서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대구

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현안들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다.

홍인표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속도감 있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s@hidomin.com

경상매일신문

2019년 03월 22일 금요일 002면 종합

“통합신공항 건설, 책임있는 추진 촉구”

대구·경북도의회 특위 성명서…차질 없는 사업 진행 합심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공항특위가 21일 통합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공항특위가 통합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21일 대구시의회에서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대구·경북의 사활이 걸려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정부가 신속하고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공동 발표 성명서에는 정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하고, 대구경북의 항공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관문공항 건설과 그에 따른 도로 및 철도망 확충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앞서,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특별위원회 위원 및 경북도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대구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현안들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으며, 향후 차질 없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해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홍인표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대구경북 시민민이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속도감 있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시간끌기식으로 난항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통합공항이전특별위)와 대구시의회(통합공항이전특별위)가 21일 대구시의회에서 통합신공항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경북·대구, 통합공항 이전 한목소리

도의회·대구시의회 공항특위
조속 추진 강력 촉구 내용 담아
중앙정부에 공동 성명서 발표

최근 대구국제공항과 K-2군공항을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가 중앙정부에 한목소리를 냈다.

21일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와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대구시의회에서 통합신공항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양 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대구시 통합공항추진본부장으로부터 추진상황과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통합공항이전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상호간 모색했다.

특히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거론되는 정치적 상황과 대구시와 국방부 간의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건에서 이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상호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는 대구 경북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100년 미래가 걸려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전 사업을 정부가 조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연계해 지난 12일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통합신공항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특별위원회도 18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다.

이날 각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25-26일까지 열리는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 후 국회와 관련 중앙정부에 이송한다.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2016년부터 본격화 된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 통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이전 주변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월 제30회 임시회때 구성됐다.

위원장은 박창석(군위), 부위원장은 박재아(비례)의원이 선출됐으며 활동 기간은 2020년 6월30일까지다.

이인호 기자 lih@kbyn.co.kr

경북신문

2019년 03월 22일 금요일 001면 종합

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공동투쟁 결의

중앙정부에 조속추진 강력 촉구
가덕도 신공항 사업 다시 거론
어려움 여건 해결... 상호협력
특위결의안 정부에 전달 예정

최근 대구국제공항과 K-2군공항을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가 중앙정부에 한목소

리를 냈다.

21일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와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특별위원회는 대구시의회에서 통합신공항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양 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대구시 통합공항추진본부장으로부터 추진상황과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통합공항이전사업에 대

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상호간 모색했다.

특히,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거론되는 정치적 상황과 대구시와 국방부 간의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건에서 이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상호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는 대구 경북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100년 미래가 걸려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전사업

을 정부가 조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연계해 지난 12일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통합신공항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특별위원회도 18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25일과 26일에 열리게 되는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 국회와 관련 중앙정부에 이송한다. 서인교·지우현 기자

대구시·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 신속 추진'

중앙정부에 성명서 공동 발표 체계적인 방안 모색 협력키로

최근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을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가 중앙정부에 한목소리를 냈다.

21일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석)와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표)는 대구시의회에서 통합신공항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에 앞서 양 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대구시 통합공항추진본부장으로부터 추진상황과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통합공항이전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상호간 모색했다.

특히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거론되는 정치적 상황과 대구시와 국방부 간의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건에서 이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상호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는 대구·경북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100년 미래가 걸려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전 사업을 정부가 조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연계해 지난 12일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통합신공항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특별위원회도 18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25일과 26일에 열리게 되는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 국회와 관련 중앙정부에 이송한다.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은 "통합공항 이전사업은 대구·경북의 미래 청사진을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사업인 만큼 대구·경북이 한목소리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각 의회 또한 지역과 당리당락에서 벗어나 오로지 시민과 도민만을 보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 이사업을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2016년부터 본격화 된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 통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이전 주변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월 제303회 임시회 때 구성됐다. 위원장은 박창석(군위), 부위원장은 박재하(비례)의원이 선출됐으며 활동 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다.

황은솔 기자gst3000@naver.com

세명일보

2019년 03월 22일 금요일 002면 정치

대경 의회, 통합공항이전 추진 촉구 '한 목소리'

통합공항이전 특위 합동으로 공동성명서 발표



최근 대구국제공항과 K-2군공항을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가 중앙정부에 한목소리를 냈다.

21일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석)와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표)는 대구시의회에서 통합신공

항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양 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대구시 통합공항추진본부장으로부터 추진상황과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통합공항이전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체계적

고 다양한 방안을 상호간 모색했다.

특히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거론되는 정치적 상황과 대구시와 국방부 간의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건에서 이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상호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는

대구·경북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100년 미래가 걸려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전 사업을 정부가 조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연계하여 지난 12일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통합신공항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도 18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25일과 26일에 열리게 되는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 국회와 관련 중앙정부에 이송한다.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은 "통합공항 이전사업은 대구·경북의 미래 청사진을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사업인 만큼 대구·경북이 한목소리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며 "각 의회 또한 지역과 당리당락에서 벗어나 오로지 시민과 도민만을 보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 이사업을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2016년부터 본격화 된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 통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이전 주변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월 제303회 임시회 때 구성됐다. 위원장은 박창석(군위), 부위원장은 박재하(비례)의원이 선출됐으며 활동 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다.

황원식 기자 hws5363@naver.com

“통합신공항 건설 조속 추진하라”

최근 대구국제공항과 K-2군공항을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가 중앙정부에 한 목소리를 냈다.

21일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와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대구시의회에서 통합신공항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양 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대구시 통합공항추진본

**경북도의회·대구시의회
중앙정부에 공동성명서
특별위원회 합동 발표
상호간 방안 토론·모색**

부장으로부터 추진상황과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통합공항이전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상호간 모색했다.

특히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거론되는 정치적 상황과 대구시와 국방부 간의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건에서 이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상호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는 대구·경북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100년 미래가 걸려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전 사업을 정부가 조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연계해 지난 12일 경북도의회 통합

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통합신공항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특별위원회도 18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은 “통합공항 이전사업은 대구·경북의 미래 청사진을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사업인 만큼 대구·경북이 한목소리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며 “각 의회 또한 지역과 당리당락에서 벗어나 오로지 시민과 도민만을 보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 이 사업을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손주락 기자 thswntkr2004@daum.net

대구광역시의회

2019년 03월 22일 금요일 001면 종합



통합신공항사업 더 이상 지연해서는 안된다

**대구시·경북도의회 공항특위
통합신공항 추진 성명서 발표**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표)는 21일 오전 대구시의회 현관 입구에서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석)와 공동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정부가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 시·도 특위 위원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하고 대구·경북의 항공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관문공항 건설과 그에 따른 도로와 철도망 확충계획을 조속히 수립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는 영남권신공항이 지난 10여 년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며 불필요한 지역감정을 유발시켜 국가 재도약의 기회를 잃어왔던 과거를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남권신공항은 2016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김해공항 확장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으로 결론 내린 사항”이라며 “정부는 대구공항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더 이상 지연해서는 안 되는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 기반시설임을 각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국방부의 통합신공항 추진에 대한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정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심과 우려를 얻

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 성명 발표에 앞서 양 시·도 특위 위원들은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대구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현안들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으며 향후 차질 없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해 힘을 모아나가기로 합의했다.

홍인표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지연되므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대구·경북 시·도민”이라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바이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속도감 있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충희 기자

통합공항이전 추진 촉구 중앙정부에 한목소리 내다

도·시의회 공동성명서 발표

최근 대구국제공항과 K-2군공항을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가 중앙정부에 한목소리를 냈다.

21일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석)와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표)는 대구시의회에서 통합신공항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양 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대구시 통합공항추진본부장으로부터 추진 상황

과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통합공항이전사업에 대한 자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상호 간 모색했다.

특히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거론되는 정치적 상황과 대구시와 국방부 간의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건에서 이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상호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는 대구 경북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100년 미래가 걸려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전 사업을 정부가 조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연계하여 지난 12일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통합신공항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도 18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25일과 26일에 열리게 되는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 국회와 관련 중앙정부에 이송한다.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은 "통합공항 이전사업은 대구·경북의 미래 청사진을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사업인 만큼 대구·경북이 한목소리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

다"며 "각 의회 또한 지역과 당리당락에서 벗어나 오로지 시민과 도민만을 보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 이 사업을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2016년부터 본격화 된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 통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이전 주변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월 제303회 임시회에 구성됐다. 위원장은 박창석(군위), 부위원장은 박재하(비례)의원이 선출됐으며 활동 기간은 2020년 6월30일까지다.

강성화기자

경안일보

2019년 03월 22일 금요일 001면 종합

"TK 주민이 최대 피해"... '통합신공항' 건설 촉구

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 성명서 추가 계획 등 적극적 자세 주문

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21일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정부가 신속하고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정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하고, 대구경북의 항공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관공공항 건설과 그에 따른 도로와 철도망 확충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을 지연시키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이전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국토교통부는 통합신공항 계획에 대구경북의 항공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관공공항으로 건설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의 통합신공항 추진에 대한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지역여론이 악화되고 있음을 정부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1일 대구시의회 입구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 촉구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홍인표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대구경북 시도민"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박창석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경북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다"라며 "조속한 건설을 위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라고 천명했다.

한편 영남권신공항은 2015년 1월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유치 경쟁을 중단하고 정부의 선정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겠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고, 2016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김해공항 확장'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으

로 결론을 내린 사항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현 단계에서는 정확히 산출해 낼 수 없는 이전사업비 산출을 무리하게 요구하며, 이전사업의 추진절차를 지연시켜 오다, 최근야에 대구시와 합의점을 찾는 등 대통령 공약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백준근 기자 by8085@naver.com

영남일보

2019년 03월 25일 월요일 003면 종합

대구경북 시·도의회 통합공항 성명에 '가짜뉴스' 담겼다

'2016년 6월 국토부가 대구공항통합이전 결론' 오류 지적 하늘길살리기본부 "당시 국토부는 원위지서 활성화 밝혀" 성명 발표전 시 브리핑 받아...집행부 입장만 전지 비판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방문 하루 전인 지난 21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통합대구공항 이전 촉구 성명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영남일보 3월22일 5면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광역의회가 민의 수렴보다는 집행부 의견만 좇아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표)와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이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석)는 지

난 21일 시의회에서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공항 건설 사업을 신속하고 책임있게 추진하라"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영남권 신공항은 2015년 1월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유치 경쟁을 중단하고 정부의 선정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2016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김해공항 확장'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으로 결론을 내린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도의회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대구공항·K2기지 통합이전은 영남권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2016년 6월21일)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부의 성수 사드 배치 발표에 앞서 그 해 7월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해공항 확장이 발표될 당시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에서 소와 못하는 대구경북의 항공수요를 위해 대구공항을 현 위치에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간주영 하늘길살리기운동본부집행위원장은 24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도의원들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들이 집행부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시의원들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인표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동 성명서 작성 과정에서) 확인 작업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성명서 발표 직전 시·도의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대구시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현황' 브리핑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K2 이전, 대구공항 존치'와 '통합이전시 국제사업 유치를 통한 국비확보' 방안 등에 대해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만 견지했다.

대구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관계자는 "기부 대 양어 방식의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따라 대구공항 존치시 K2기지는 이전을 불가하고, K2만 반납을 지자체는 없다"며 "대구공항이 수용환경에 도달했을 뿐 아니라 현 부지의 확장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비비행단 이전 등의 전력 대체처는 국방부에서 수용 불가하고,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정부재정 투입의 군공항 이전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임대용 전 대구 동구청장은 "대구시는 대구공항 이전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3년째 기부 대 양어 방식의 특별법 핑계만 낸다"

며 "정부나 공공공사, 국토부가 현 부지를 매입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이 원하는 대구공항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대구시의 고민이 너무 아쉽다"고 덧붙였다.

영남수기자 4089@yonam.com

“통합신공항 성공 이전” 적극 소통 나선 경북도

지자체장·의원·도민 참석
공감대 형성 정책토론회
사업 주체로 주도적 역할

경상북도가 9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정책토론회'를 열어 통합신공항 추진 의지를 모은다.
이번 토론회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추진과 이를 통한 대구경북의 비약적 발전, 신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추진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2시 도청 화백당에서 열리는 정책토론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도의원, 군위·의성군수,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경북도 도로철도공항과지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 경과보고를 받고 이현수 한국항공대 교수의 '물류를 중심으로 한 통합신공항의

발전 방향', 최영은 대구경북연구원 통합공항이전연구단장의 '통합신공항 건설과 지역의 발전'에 관해 주제발표를 들을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종합토론회에는 윤대식 영남대 교수, 신동준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 회장, 윤문길 한국항공대 교수, 황대우 티웨이 대외협력그룹장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경북도는 이번 정책토론회가 경북도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 의

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 사업은 대구시가 주도하고 경북도가 보조를 맞추는 정도의 역할만 해왔다.
하지만 부산·울산·경남이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에 속도를 내는 등 상황이 급변하자, 경북도 역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의 주체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가 주최하는

통합신공항 관련 각종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신공항 추진 자문단 구성에 나서는 등 사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도와 도의회, 군위·의성군은 물론 통합신공항 추진에 관심을 가진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영채 기자 pyc@maeil.com

경북일보

2019년 04월 10일 수요일 001면 종합

통합신공항, 동북아 항공물류 거점공항으로 키워야

인천공항에 과도하게 집중 화물 물동량 지방공항 분산 필요
통합신공항 정책토론회...이철우 도지사 연내 부지 확정 지신

인천공항에 과도하게 집중된 항공물동량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분산시키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경북과 대구가 더욱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기사 3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경북과 대구의 비약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정책토론회'가 9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영만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김수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박창석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공학 전문가,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신공항 건설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토론회에서 이현수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의 '물류를 중심으로 한 통합신공항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최영은 대구경북연구원 통합공항이전연구단장이 '통합신공항 건설과 지역의 발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현수 교수는 "인천공항에 항공물동량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국가 간

FTA체결 등으로 경제시장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출입 물동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천공항에 대한 의존도를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국가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항공물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은 단장은 "공항과 연계된 권역별 발전 구상이 필요하고, 경북대구 상생협력이 통합신공항의 성공 동력"이라며 "공항 주변 발전 협의체 구성, 글로벌 마케팅, 지역발전 마스터플랜 마련 등에 경북과 대구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제시된 과제 및 국내외 사례에 대한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자로 나선 윤대식 영남대 교수는 도시공학분야, 윤문길 한국항공대 교수는 항공경영분야, 신동준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 회장은 항공산업분야의 학계 전문가로, 황대우 티웨이항공 대외협력그룹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의견을 제시해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신공항은 신공항건설과 배후도시 조성 등을 더하면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대역사로 항공물류 경쟁력 확보, 외국인 관광객 유입 등으로 경북대구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어떠한 어려운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올해 내에 최종 이전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m

경상매일신문

2019년 04월 10일 수요일 002면 종합

대경 상생협력, 신공항 성공 동력!

경북, 발전방향 모색...정책토론회
“올해 내 최종 부지 선정에 최선”

경북도는 9일 도청 화백당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대구경북의 비약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부 이현수 교수의 '물류를 중심으로 한 통합신공항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대구경북연구원 최영은 통합공항이전연구단장의 '통합신공항 건설과 지역의 발전'이라는 주제발표 등을 통해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이 모색됐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회에서는 영남대학교 도시공학부 윤대식 교수,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윤문길 교수,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 신동준 회장, 티웨이항공 황대우 대외협력그룹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지역과 연계된 통합신공항의 추진방향 및 대구경북 경쟁력확보 방안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이 제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항공대학교 이현수 교수는 "인천공항에 항공물동량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 간 FTA체결 등으로 경제시장 범위가



경북도는 도청 화백당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 제공

확대됨에 따라 수출입 물동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본 공항의 사례를 언급하며 "인천공항에 대한 의존도를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국가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항공물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대구경북연구원 최영은 통합공항이전연구단장은 "공항과 연계된 권역별 발전 구상이 필요하고, 대구·경북의 상생협력이 통합신공항의 성공 동력"이라며 "공항주변 발전 협의체 구성, 글로벌 마케팅, 지역발전 마스터플랜 마련 등에 대구·경북이 협력해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과제 및 국

내외 사례에 대한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으며, 토론자로 나선 영남대학교 윤대식 교수는 도시공학분야, 한국항공대학교 윤문길 교수는 항공경영분야,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 신동준 회장은 항공산업분야의 학계 전문가로, 티웨이항공 황대우 대외협력그룹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이날 이철우 지사는 "통합신공항은 신공항건설과 배후도시 조성 등을 더하면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대역사로 항공물류 경쟁력 확보, 외국인 관광객 유입 등으로 대구·경북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이라며 아울러 "올해 내에 최종 이전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필 기자



9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경북도 정책토론회 새 비전 제시

“화물 물동량 97% 인천공항 집중
추가 이동 비용 발생…분산 필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동북아 항공물류 거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발전 비전 키워드로 ‘물류’가 제시됐다. 인천공항에 집중된 물동량을 확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면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주장은 9일 경상북도가 개최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경북도가 마련한 정책토론회에는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영만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김수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박창석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장,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물류를 중심으로 한 통합신공항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현수 한국항공대 교수는 우리나라 화물 물동량의 97~98%가 인천공항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으며 지방공항 중에선 김포·김해공항 정도만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방 물류량이 인천공항까지 이동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분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공항이 물량

의 상당수를 소화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여객 운송에 더해 항공물류 활성화에 특화한 시설을 갖춘 경우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게 이 주장의 핵심이다.

이 교수에 이어 발표에 나선 최영은 대구경북연구원 통합공항이전연구단장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동력은 대구경북의 상생협력에 있으며 공항과 연계한 권역별 발전 구상이 필요하다”며 “공항 주변 발전협의체 구성, 글로벌 마케팅, 지역발전 마스터플랜 마련 등에 대구경북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는 윤대식 영남대 교수, 윤문길 한국항공대 교수, 신동춘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 회장, 황대유티웨이항공 대외협력그룹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도시공항, 항공경영, 항공산업, 항공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 토론의 의미를 더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통합신공항은 신공항 건설에 배후도시 조성 등을 더하면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대역사”라면서 “항공물류 확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으로 대구경북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박영재 기자 pyrc@imail.com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항공물류’ 국가개발·경제 활성화에 활용해야”

경북도, ‘정책토론회’ 열어
사업방향·정책확보 등 모색
‘대·경 상생협력’이 성공 동력
‘공항 연계 권역발전구상’ 등
전문가들 다양한 의견 제시

경북도가 9일 화백당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대구경북의 비약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부 이현수 교수의 ‘물류를 중심으로 한 통합신공항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대구경북연구원 최영은 통합공항이전연구단장이 ‘통합신공항 건설과 지역의 발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 영남대 도시공학부 윤대식 교수,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윤문길 교수,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 신동춘 회장, 티웨이항공 황대유티웨이항공 대외협력그룹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지역과 연계된 통

합신공항의 추진방향 및 대구경북 경제력확보 방안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항공대 이현수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인천공항에 항공물류량이 과도하게 집중된 만큼 국가 간 FTA 체결 등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확대에 따라 수출입 물동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본 공항의 사례를 언급하며 “인천공항에 대한 의존도를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국가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항공물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구경북연구원 최영은 통합공항이전연구단장은 “공항과 연계된 권역발전 구상이 필요하고, 대구경북의 상생협력이 통합신공항의 성공 동력이다”며 “공항주변 발전 협의체 구성, 글로벌 마케팅, 지역발전 마스터플랜 마련 등에 대구경북이 협력해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이 토론자로 나선 영남대 윤대식 교수는 도시공학분야, 한국항공대 윤문길 교수는 항공경영분야, 글로벌

항공우주산업학회 신동춘 회장은 항공산업분야의 학계 전문가로, 티웨이항공 황대유티웨이항공 대외협력그룹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의견을 제시해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신공항은 신공항건설과 배후도시 조성 등을 더하면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대역사로 항공물류 경쟁력 확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으로 대구경북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어떠한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반드시 성공시키고 올해 내에 최종 이전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신공항 건설비를 두고 국방부와 대구시 간 이전으로 추진이 지연됐으나, 최근 국무조정실의 주재로 이전사업비를 합의해 통합이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공항은 어느 특정지역의 공항이 아니라 우리 공항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등 대역사의 틀에서 도청 전 부처들이 공행박사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인교 기자



경북도가 9일 화백당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대구경북의 비약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해 신공항 검증 수용 타당성 없는 정책”

박창석 도의원, 김해신공항
국무총리실 검증 수용에 대한
입장문 발표 “합의정신 위배”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창석 의원(군위·사진)은 ‘김해신공항 국무총리실 검증 수용에 대한 입장’을 27일 발표했다.

박창석 의원은 입장문에서 “지난 십여 년 간 영남권 신공항 문제로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는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겪어왔으며 소모적인 지역갈등으로 국가 발전과 영남권 제도약의 기회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공항 사업의

자치단체는 유치 경쟁을 중단했고 정부의 선정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겠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국토교통부에

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2016년 6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린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와 영남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대승적 합의를 저버리고, 일부 자치단체의 김해 신공항 검증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합의정신에 위배되며 신뢰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

주의와 당리당락으로 국민들과 합의된 정책을 뒤엎어 버린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며, 김해 신공항 검증 수용은 합의와 절차를 무시한 타당성 없는 정책 결정으로, 영남권에 추가적인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고 향후 어떠한 상생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국가정책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창석 의원은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반드시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김해신공항 검증이 통합신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될 것”임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인호 기자 lih@kbyn.co.kr

우종두 기자 wid@kbyn.co.kr

“김해신공항 재검증 신뢰·원칙의 붕괴”

박창석 경북도의원 비판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창석 의원(사진)이 지난달 27일 ‘김해신공항 국무총리실 검증 수용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박창석 의원은 입장문에서 “지난 십여 년 간 영남권 신공항 문제로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는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겪어왔으며 소모적 지역갈등으로 국가 발전과 영남권 제도약의 기회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또 “신공항 사업 담보로 2015년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는 유치경쟁을 중단하고 정부 선정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겠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국토교통부의 전문기관 용역결과에 따라 2016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린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와 영남지역 공동번영을 위한 대승적 합의를 저버리고, 일부 자치단체의 김해 신공항 검증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합의정신에 위배되며 신뢰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주의와 당리당락으로 국민들과 합의된 정책을 뒤엎어 버린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며, 영남권에 추가적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향후 어떠한 상생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국가정책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반드시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 김해신공항 검증이 통합신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임태 기자

“김해신공항 검증은 합의 무시한 무책임한 행동”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위
박창석 위원장, 강력반발 나서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은 김해신공항 국무총리실 검증 수용에 대한 입장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십여 년 간 영남권 신공항 문제로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는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겪어왔으며 소모적인 지역갈등으로 국가 발전과 영남

권 제도약의 기회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또 “신공항 사업의 담보로 2015년 1월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는 유치경쟁을 중단하고 정부의 선정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겠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2016년 6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린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와 영남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대승적 합의를 저버리고, 일부 자치단체의 김해 신공항

검증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합의정신에 위배되며 신뢰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주의와 당리당락으로 국민들과 합의된 정책을 뒤엎어 버린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며, 김해 신공항 검증 수용은 영남권에 추가적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향후 어떠한 상생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국가정책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섭기자 kws@hidomin.com

“정부는 일방적인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 즉각 철회하라”



11일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석)와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표)는 경북도의회에서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영남일보

경북도·대구시의회 공항특위 두번째 공동 성명서 발표 가져 통합신공항이전사업추진 촉구

최고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국무 총리실 재검토 발표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생애가 뜨거워진 가운데 경북도의회·대구시의회 공항특별위원회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 중앙정부에 한목소리를 냈다.

11일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석)와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표)는 경북도의회에서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대구시의회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통합신공항이전 사업 조속 추진 성명서 이후 두번째 공동 성명서 발

표다. 발표에 앞서 양 의회 통합공항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은 경북도 공항추진기획단장으로부터 추진상황과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통합공항이전사업에 대한 자질없는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상호간 모색했다.

특히,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토 및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 정부의 무책임한 재검토 방침에 대해 비판하며, 5개 시도가 합의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기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는 대구·경북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기존의 합의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창석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장은 “통합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시 한 번 양의회의 특위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면서 “대구·경북의 미래 청사진을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사업인 만큼 각 의회 또한 지역과 달리 당락에서 벗어나 오로지 시민과 도민만을 보고 한목소리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일 먼저 앞장서 나가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2016년부터 본격화 된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 통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이전 주변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월 제30회 임시회 때 구성됐다. 위원장은 박창석(군위), 부위원장은 박재아(비례)의원이 선출되며 활동 기간은 2020년 6월 30일 까지다.

서연고 기자

대구시·경북도의회 “정부는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 철회하라”

공항특위, 공동성명서 발표 “부울경 갈등조장 즉각 중단”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정부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⑤면에 관련기사 양 의회 공항특별위원회는 11일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정부는 지역인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을 철회하라”며 “국방·항공 정책과 직결되는 영남권 신공항을 책임있게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울산·경남 정치권을 향해 “지역 갈등 조장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 합의에 따라 계획된 영남권 신공항 사업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서는 지난 3월 대구시의회에서 함께 실시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조속 추진’ 성명서 이후 두 번째다. 양 의회 공항특별위원회는 또 5개 시·도가 합의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기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박창석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경북 미래 청사진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업인 만큼 각 의회 또한 지역과 달리 당락에서 벗어나 오로지 시민·도민만을 보고 한목소리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인표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인을 대표하는 양 의회가 대구·경북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다. 앞으로 서로 긴밀히 연대를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경원기자 history@yeonam.com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와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특별위원회가 11일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 발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충남신문

대구일보



대구·경북 시도의회가 11일 경북도의회에서 김해신공항 재검토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규탄 결의를 다지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 즉각 철회하라”

대구시·경북도의회 공동성명 5개 시도 합의안 추진 촉구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11일 정부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와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이날 경북도의회에서 모여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특위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대구·경북 시·도민을 무시하는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5개 시·도가 합의·수용한 국토교통부 계획을 책임있게 추진하라”고 밝혔다.

2면에 계속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김해신공항 재검토 철회” 대구시·경북도의회 성명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는 11일 공동으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일부 정치권의 영남권 신공항 정지도와도 시도를 규탄하고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의 합의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계획한 영남권 신공항을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와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이날 경북도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대구·경북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시도의회 양 특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지역인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국방·항공정책과 직결되는 국가 차원의 기반시설사업인 영남권 신공항의 책임 있는 추진 ▷

“정치도구화 시도 중단 합의안 추진 강력 촉구”

부울경 정치권의 지역갈등 조장 중단 및 계획된 영남권 신공항 사업 적극 협력을 요구했다.

양 특위는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영남지역의 유일한 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경제체계의 약소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역 최대의 상생협력 사업이자 중추적인 국가적 사업”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입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졌고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회의로 어렵사리 오해·논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이런 합의를 정부가 뒤엎어 버린다면 시도 특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양 특위는 또한 “이는 앞으로 어떠한 지역과도 상생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국가정책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창석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구·경북 미래 청사진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업인 만큼 각 의회 또한 지역과 달리 당락에서 벗어나 오로지 시민과 도민을 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홍인표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인을 대표하는 양 의회가 대구·경북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은 마땅히 책무”라며 “앞으로 경북도의회와 긴밀한 연대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두성 기자 dscho@maeil.com

박영제 기자 pye@maeil.com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 합동이전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1일 정부의 일방적인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통합신공항 이전 조속히 추진하라” 공동성명

대구시·경북도의회 공항특위

최근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국무총리실 재검토 발표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경북도의회·대구시의회 공항특별위원회가 11일 한자리에 모여 중앙정부가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석)와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표)는 이날 경상북도의회에서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대구·경북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기존의 합의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공동성명서 발표는 지난 3월 구시의회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통합신공항이전 사업 조속 추진 성명서 이후 두번째다.

발표에 앞서 양 의회 통합공항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북도 공항추진기획단장으로부터 추진상황과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토론을 통해 통합공항이전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토 및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 정부의 무책임한 재검토 방침에 대해 비판하며, 5개 시도가 합의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기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박창석 위원장은 “대구·경북의 미래 청사진을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사업인 만큼 각 의회 또한 지역과 당리당락에서 벗어나 한 목소리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본격화된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 통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이전 주변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월 임시회때 발표했다.

위원장 박창석(군위), 부위원장은 박재아(비례)의원이 선출됐으며 활동 기간은 오는 2020년 6월30일까지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 합동특위가 11일 정부의 일방적 재검토 방침을 철회하고 있다.

“김해신공항 확장안 재검토 방침 즉각 철회하라”

경북도·대구시의회 공항특위 중앙정부에 한목소리로 반발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가 한 목소리로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재검토 방침에 대해 한발발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 국회의와 공항특위는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11일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 정부의 재검토 방침이 무책임하다는 내용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양 의회는 기존 5개 시도가 합의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기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공동 성명서에는 대구·경북의 입장을 당에서 벗어나 시도단위 앞장서 나가겠다는 중대한 사업인 만큼 각 의회는 당리당락에서 벗어나 한 목소리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가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창훈 기자 siram77@naver.com

“김해신공항 재검토 즉각 철회하라”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와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가 11일 경북도의회에서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석)와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표)는 11일 경북도의회에서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대구·경북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기존의 합의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공동성명서 발표는 지난 3월 구시의회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통합신공항이전 사업 조속 추진 성명서 이후 두번째 공동 성명서 발표다.

발표에 앞서 양 의회 통합공항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북도 공항추진기획단장으로부터 추진상황과

경북도의회·대구시의회 공항특위, 합동 공동성명서 발표 정부 무책임 재검토 방침 비판·기존 사업 이행 강력 촉구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통합공항이전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상호간 모색했다.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토 및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 정부의 무책임한 재검토 방침에 대해 비판하고 5개 시도가 합의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기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발표한 성명서에는 대구·경북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기존의 합의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은 “통합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시 한 번 양 의회의 특위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며 “대구·경북의 미래 청사진을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사업인 만큼 각 의회 또한 지역과 당

리당락에서 벗어나 오로지 시민과 도민만을 보고 한목소리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가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2016년부터 본격화 된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 통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이전 주변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월 제303회 임시회때 구성됐다.

위원장은 박창석(군위), 부위원장은 박재아(비례)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활동 기간은 2020년 6월30일까지다.

김우섭·김홍철기자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건설특위와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위가 11일 가진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정치적 이용 규탄 공동성명서 발표 장면. 대구시의회 제공

“영남권 신공항 정치적 이용말라”

대구시·경북도의회 성명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표)와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석)는 공동으로 11일 경북도의회에서 영남권 신공항 정치적 이용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 성명서는 지난달 20일 영남권 신공항으로 확정된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증은 총리실에서 재검증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김해 신공항은 영남권 5개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고, 정부가 동의해 확정된 사업임을 상기시키며 대구·경북 지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시·도의회는 밝혔다.

공동성명서에서 시·도의회 공항특위는 △정부는 지역민의 합의를 무시한 일

방적인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 △대한민국의 국방 및 항공정책과 직결되는 국가차원의 기반시설사업인 영남권 신공항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 △부산, 울산, 경남지역 정치권은 지역갈등 조장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 합의에 따라 계획된 영남권 신공항 사업에 적극 협력할 것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홍인표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대구·경북 최대 현안사업인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은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경북도의회와 긴밀한 연대를 통해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상만·최연정기자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가 11일 경북도의회에서 김해신공항 재검토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규탄 결의를 다지고 있다.

“김해 신공항 재검토 방침 즉각 철회하라”

도의회·대구시의회 한목소리 정부 비판 공동성명서 발표

최근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국무총리실 재검토 발표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경북도의회·대구시의회 공항특별위원회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 중앙정부에 한목소리를 냈다.

11일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와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경북도의회에서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에 대구시의회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통합신공항이전 사업 조속 추진 성명서 이후 두번째 공동 성명서 발표이다.

발표에 앞서 양 의회 통합공항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북도 공항추진기획단장으로부터 추진상황과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한 재검토이고 다양한 방안을 상호 간 모색했다.

특히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토 및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재검토 방침에 대해 비판하며, 5개 시도가 합의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기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상호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는 대구·경북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기존의 합의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은 “통합공항 이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시 한 번 양 의회의 특위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면서 “대구·경북의 미래 청사진을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사업인 만큼 각 의회 또한 지역과 당리당락에서 벗어나 오로지 시민과 도민만을 보고 한목소리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가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정을 즉각 철회하고 기존의 합의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은 “통합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시 한 번 양 의회의 특위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면서 “대구·경북의 미래 청사진을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사업인 만큼 각 의회 또한 지역과 당리당락에서 벗어나 오로지 시민과 도민만을 보고 한목소리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가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인호·김영근 기자

경상투데이

2019년 07월 12일 금요일 001면 종합

김해신공항 재검토에 ‘다시 들끓는 대구·경북’

시도의회, 정부 무책임에 비판... 즉각 철회 ‘한 목소리’

공동 성명서 발표, 통합공항 차질 없는 추진 방안 모색

당리당락서 벗어나 ‘이전사업 성공’ 앞장... 의지 확고

최근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국무총리실 재검토 발표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경북도의회·대구시의회 공항특별위원회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 중앙정부에 한목소리를 냈다.

11일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석)와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표)는 경북도의회에서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에 대구시의회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통합신공항이전 사업 조속 추진 성명서 이후 두번째 공동 성명서 발표이다.

발표에 앞서 양 의회 통합공항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북도 공항추진기획단장으로부터 추진상황과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통합공항이전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상호간 모색했다.

특히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토 및 부

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재검토 방침에 대해 비판하며, 5개 시도가 합의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기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상호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는 대구·경북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기존의 합의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은 “통합공항 이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시 한 번 양 의회의 특위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면서 “대구·경북의 미래 청사진을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사업인 만큼 각 의회 또한 지역과 당리당락에서 벗어나 오로지 시민과 도민만을 보고 한목소리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가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신용진 기자syj@hanmail.net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위함께 공동 성명서

정부는 기만적인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
즉각 철회하고, 5개 시·도가 합의·수용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해할 것을 촉구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표)는 11일 경북도의회에서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석)와 공동으로 영남권 신공항 정치적 이용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 성명서는 지난달 20일 영남권 신공항으로 확정된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증과 총리실에서 재검증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5개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고, 정부가 동의해 확정된 사안임을 상기시키며 대구·경북 지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공동 성명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 6월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특위가 발표한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정치적 이용 규탄 성명서”와 마찬가지로 ①정부는 지역민의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 ②대한민국의 국

방 및 항공정책과 직결되는 국가차원의 기반시설사업인 영남권 신공항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 ③부산, 울산, 경남지역 정치권은 지역갈등 조장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 합의에 따라 계획된 영남권 신공항 사업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인표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대구·경북 최대 현안사업인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은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경북도의회와 긴밀한 연대를 통해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특위는 지난 3월 21일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조속 추진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종구기자

경안일보

“김해신공항 재검토, 즉각 철회하라!”

도·시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 합동으로 공동성명서 발표

최근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국무총리실 재검토 발표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경북도의회·대구시의회 공항특별위원회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 중앙정부에 한목소리를 냈다.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석)와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표)는 경북도의회에서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지난 3월 대구시의회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통합신공항이전 사업 조속 추진 성명서 이후 두번째 공동 성명서 발표이다.

발표에 앞서 양 의회 통합공항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북도 공항추진기획단장으로부터 추진상황과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통합공항이전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상호간 모색했다.

특히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토 및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무책임

“김해신공항 재검토 철회” 경북·대구 다시 뭉쳤다

의회 공동 성명서...정부 비판
“기존 계획 차질 없도록 협력”

최근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국무총리실 재검토 발표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경북도의회·대구시의회 공항특별위원회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 중앙정부에 한목소리를 냈다.

11일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와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경북도의회에서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에 대구시의회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통합신공항이전 사업 조속 추진 성명서 이후 두번째 공동 성명서 발표이다.

발표에 앞서 양 의회 통합공항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북도 공항추진기획단장으로부터 추진상황과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통합공항이전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상호간 모색했다.

특히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토 및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거론되



11일 경북도의회·대구시의회 공항특별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는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재검토 방침에 대해 비판하며, 5개 시도가 합의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기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상호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는 “대구·경북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기존의 합의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은 “통합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시 한 번 양의회의 특위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구

는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재검토 방침에 대해 비판하며, 5개 시도가 합의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기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상호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2016년부터 본격화 된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 통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이전 주변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월 제303회 임시회대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박창석, 부위원장은 박재아(비례)이 선출됐으며 활동 기간은 2020년 6월30일까지다. 이종필 기자

2019년 07월 12일 금요일 001면 종합

업의 성공을 위해 다시 한 번 양의회의 특위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면서 “대구·경북의 미래 청사진을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사업인 만큼 각 의회 또한 지역과 당리당락에서 벗어나 오로지 시민과 도민만을 보고 한목소리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가겠다”며 각 의회를 밝혔다.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2016년부터 본격화 된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 통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이전 주변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월 제303회 임시회대 구성됐다.

위원장은 박창석(군위), 부위원장은 박재아(비례)의원이 선출됐으며 활동 기간은 2020년 6월30일까지다.

김구동 기자 ga7799@gaibo.com

경북도·대구시의회 공항특위, “김해신공항 재검토 철회해야”

도·시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합동으로 공동성명서 발표



최근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국무총리실 재검토 발표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경북도의회·대구시의회 공항특별위원회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 중앙정부에 한목소리를 냈다.

11일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석)와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표)는 경상북도의회에서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

다.

이는 지난 3월에 대구시의회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통합신공항이전 사업 조속 추진 성명서 이후 두번째 공동 성명서 발표이다.

발표에 앞서 양 의회 통합공항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북도 공항추진기확단장으로부터 추진상황과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통합공항이전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상호간 모색했다.

특히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토 및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재검토 방침에 대해 비판하며, 5개 시도가 합이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기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는 대구·경북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을 즉

각 철회하고 기존의 합의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은 “통합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시 한 번 양 의회의 특위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면서 “대구·경북의 미래 청사진을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사업인 만큼 각 의회 또한 지역과 당리당락에서 벗어나 오로지 시민과 도민만을 보고 한목소리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가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2016년부터 본격화 된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 통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이전 주변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월 제303회 임시회때 구성됐다. 위원장은 박창석(군위), 부위원장은 박재하(비례)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활동 기간은 2020년 6월30일까지다.

김재원기자

세명일보

2019년 07월 12일 금요일 002면 정치



경상북도의회·대구시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가 합동으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김해신공항 재검토 즉각 철회해야

경북도의회·대구시의회, 공동성명서 발표

최근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국무총리실 재검토 발표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경북도의회·대구시의회 공항특별위원회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 중앙정부에 한목소리를 냈다.

11일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석)와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표)는 경상북도의회에서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에 대구시의회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통합신공항이전 사업 조속 추진 성명서 이후 두번째 공동성명서 발표이다.

발표에 앞서 양 의회 통합공항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북도 공항추진기확단장으로부터 추진상황과 현안사항

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통합공항이전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상호간 모색했다. 특히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토 및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재검토 방침에 대해 비판하며, 5개 시도가 합이 수용한 국토교통부의 기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간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에는 대구·경북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기존의 합의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박창석 위원장은 “통합공항 이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다시 한 번 양의회의 특위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면서 “대구·경북의 미래 청사진을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사업인 만큼 각 의회 또한 지역과 당리당락에서 벗어나 오로지 시민과 도민만을 보고 한목소리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가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본격화 된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 통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이전 주변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월 제303회 임시회때 구성됐다.

위원장은 박창석(군위), 부위원장은 박재하(비례)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활동 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다. 권용길기자

대구일보

2019년 08월 01일 목요일 004면 정치

“대구·경북 미래를 바꿀 기회 새로운 하늘길 반드시 열 것”

경북도의회 특별위원장 칼럼에 인터뷰

<2> 박창석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장

연내 이전지 확정에 사활 걸어 시의회와 협조체계 구축 중요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러일으킬 돌파구인만큼 도의회는 중도 경북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석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장은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통합신공항 경북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경북의 경제·산업 발전을 견인해 나갈 통합공항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특위에는 박창석 위원장을 비롯해 박재하(비례·자유한국당), 김득환(구미4·더불어민주당), 김병교(구미6·자유한국당), 김수문(의성2·자유한국당), 윤승호(비례·자유한국당), 윤창욱(구미2·자유한국당), 정세현(구미1·더불어민주당), 홍정근(경산1·자유한국당) 등 모두 9명의 도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위는 4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열고 경북도지사로부터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가 현재 경북도 신공항 건설정책에 여러가지 방향을 제시하며 최종 목표로 신공항 건설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특위 활동의 길이 녹록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정부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문제 제기 불거져나왔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곧바로 반박하는 단독 입장을 발표했다. 신공항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고민이었다.

그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십여 년 간 논란속에 김해공항확장과 대구공항통합 이전으로 결정돼 추진되고 있



박창석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장.

고 이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통합공항 이전은 대구경북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3월에는 특위 위원들과 함께 정부의 일관적인 공항정책 추진과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지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정부 관련부처 및 국회에 전달했다.

박 위원장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해 대구시의회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통합 공항 이전에는 대구시의회와도 마음을 같이하고 있다”며 “대구경북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하늘 길을 위해 우리 특위 위원들은 물론 대구시의회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통합이전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창석 위원장은 “신공항의 연내 이전지 확정과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경북도민들이 마지막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여야 할 것”이라며 “경북도의 발전을 위한 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길 기자 kimmark@idaegu.com



김주수 의성군수 등 통합공항 유치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신공항은 의성으로' 등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의성군 제공

의성군·새마을회, 통합공항 유치 결의대회

김주수 군수·도의원 등 300명 참석
의성을 시가지 돌며 유치 캠페인도
도로·관공서 현수막 1천개 내걸어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과 의성군 새마을회(회장 장상은)는 30일 의성 초등학교 강당에서 통합공항 유치 결의대회를 연 뒤 의성을 시가지를 돌며 공항 유치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의성군 새마을회가 통합공항 유치에 대한 정보 공유로 군민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의성군 최대 관심 사업인 통합공항 유치에 힘을 보태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해 김수문 경북도의원, 군의원, 지역

기관·단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300여 명이 참가했다.

김주수 군수는 "무더운 날씨에도 통합공항 유치 결의대회에 참여한 군의원과 새마을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통합공항은 이제 최종 이전 부지 결정을 위한 의성군민의 선택만이 남았다. 군민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했다.

의성군은 통합공항 의성 유치와 관련, 주민 설명회와 간담회·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의 여론을 한곳으로 모으고 있다.

지역 각종 사회단체에도 군의 이 같은 노력에 적극 호응하면서 의성 지역에는 각종 도로와 관공서, 기관·단체 등에 통합공항 유치 현수막 1천여 개가 내걸려 있다. 이희대 기자

"통합공항이전사업 성공까지 최선 다할 것"

특별위, 주요 업무 보고 받아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한 전담부서(통합신공항추진단) 신설 등 통합공항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가 2일 제5차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통합공항이전사업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집행부와 논의했다.

특히 통합공항 이전 부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이라 국방부 방첩발표 후

과열되는 양상인 군위-의성군간 경쟁에 따른 갈등해결 방안과 타락한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여러 쟁점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박창석 위원장은 "통합공항 이전사업은 경북의 미래 청사진을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사업인 만큼 대구·경북은 확고한 의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 반드시 해결해 나아간다"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사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성공까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팔 기자



나는 의원입니다

박창석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장

"통합신공항 이전, 되도록 만들어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 된다 안 된다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야죠."

박창석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장은 "일각에서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과연 되겠냐고 하는데, 무슨 일이든 누가 가져 단재주는 법은 없으며 그런 자세로는 될 일 없다"며 "통합신공항 사업은 대구경북이 의지를 갖고 반드시 만들어내야 하는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신공항의 연내 이전지 확정과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마지막까지 한마음을 한곳으로 단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도 지역민들과 함께 신공항 이전지 선정이 조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는 통합신공항 건설의 핵심적인 사업들을 해결하고 이전 지역의 발전을 다각적으로 지원 및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구성됐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위원회가 열렸으며, 올 3월 정부의 일관적인 공항정책 추진과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지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 관련 부처 및 국회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박 위원장 개인적으로 영남권 신공항의 정치적 이용을 반박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신공항 추진을 당부하는 단독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는 대구시의회의와의 공조에도 힘을 쏟았다. 지난 3월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7월에는 영남권 신공항의 정치적 이용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서도 냈다.

박 위원장은 "현재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지 선정 절차가 남아있는 데 이전 후보지인 군위군 우보면과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중 어디로 오게 될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오든 성공적인 공공관용을 만들어 다시 한 번 대구경북을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대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통합공항이전특별위 활동과 별개로 농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도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지난 4월



박창석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장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기업 승계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 기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농촌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들의 노동력을 안정적이고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농사 일꾼 제도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직장생활과 사업을 하며 해마다 25년을 떠돌다 2009년 고향인 군위로 돌아왔는데 대한민국은 빠르게 변하는 반면 우리 농촌은 별로 변한 게 없어 충격을 받았다"며 "통합공항이전특별위 활동과 각종 농촌 관련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농촌이 잘살고 대구경북이 새롭게 일어나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현주 기자 hly@maeil.com

대구신문

2019년 09월 04일 수요일 004면 정치

김수문 도의원 "불공정 거래 받아들이 수 없다"

공항이전 주민투표 불가 입장

대구·경북 통합공항이전지 선정을 앞두고 국방부에서 주민투표 방식이 거론되면서 의성군이 '불공정 불'이라며 반발 중인 가운데(본지 8월 28일자 1면 참조) 의성출신의 김수문(사진)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이 이에 대한 절대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 경북도 관계자가 국방부가 주민투표 찬성률



로 결정하려고 한다는 분위기를 전한데 대해 "출발선이 다른 불공정 경쟁은 받아들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의성군민들은 공정한 경쟁을 전제, 공항유치에 전력을 투구해 왔는데 국방부가 일방통행식 주민투표를 고집한다면 공항이전이 무산될 가능성은 99%"라고 못박았다. 김삼만기자 ksm@daegu.co.kr

경북도, 통합공항이전특위 활동 활발

군위-의성 경쟁갈등 해결 등 제5차 회의서 쟁점사항 토론

경북도가 7월 조직개편을 통한 통합신공항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통합공항이전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통합공항이전특위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석)는 2일 제5차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이전사업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별위원들은 이전 부지를 주민투표로 결정한다는 국방부 방침발표 후 과열 양상인 군위-의성군의 경쟁과 갈등을 해결할 방안 등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했다.

또 탈락한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현재 이슈가 되는 여러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박창석 위원장은 “통합공항 이전사업은 경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사업인 만큼 대구경북은 확고한 의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위원들과 집행부가 힘을 모아 사업의 성공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2016년 본격화된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 통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박창석 위원장, 박재아 부위원장 등으로 구성, 내년 2020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한다.

이임태 기자 sinam77@naver.com

경북일보

2019년 09월 04일 수요일 005면 종합

통합공항 이전지 선정 갈등 해결책 모색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위

대구경북 통합공항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어 이전지 선정과 관련한 갈등 해결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통합공항이전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집행부와 모색했다.

특히 통합공항 이전 부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이라 국방부 방침발표 후 과열되는 양상인 군위군과 의성군간 경쟁에 따른 갈등해결 방안과 탈락한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여러 쟁점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토

론의 시간을 가졌다.

박창석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위 위원장은 “통합공항 이전사업은 경북의 미래 청사진을 결정짓는 매우 중대한 사업인 만큼 경북·대구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성공까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m

국민일보

2019년 09월 05일 목요일 Y15면 사회

대구경북 신공항 후보지 ‘주민투표 방식’ 거센 반발

의성군 “찬성률 100% 반영은 출발선부터 불공정한 게임”

“주민투표방식은 처음부터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국방부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최종후보지를 주민투표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후보지인 경북 의성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지역 경북도의원들은 국방부가 당초 방침을 고집할 경우 자칫 공항이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열린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이전특위(위원장 박창석)에서 경북도는 통합신공항이전 후보지를 주민투표 찬성률로 선정하기로 한 국방부의 내부 방침을 공

식 확인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국방부 방침은 ‘주민투표 찬성률로 이전지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난 2005년 선정된 경주방폐장 역시 주민투표로 이뤄진 만큼 이 방식 말고는 현재로서는 부족한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성지역은 주민투표 방식을 놓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알려진 국방부의 방침은 단독후보지인 군위군은 주민찬성률 100%를 반영하는 반면, 공동후보지인 의성군은 찬성률 100%를 반영하지 않는 방식이 유력시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의성 출신 경북도의원들은 “출발선이 처음부터 불공정한 게임을 국방부가 계속 고집할 경우 공항이전 자체가 아예 무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김수문 경북도 의원은 “현재 알려진 국방부의 일방통행식 투표방식

대로 간다면 공항이전은 무산될 가능성이 99%”라며 “이렇게 될 경우 공항이전은 기약이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의성군은 이전절차 중단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에 나섰고 경북도는 의성군의 진의를 파악하는 한편, 별도의 중재안 마련에도 고민 중이다. 배용수 경북도 도시건설국장은 “군위군과 의성군이 원만하게 합의할 경우 통합공항은 어디로 가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양지역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을 위해 군위군은 우보면, 의성군은 비안면과 군위소보면을 각각 이전 후보지로 정하고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통합군공항 주민투표 합의 공정하지 않아”

포항 남구 SRF 환경오염문제 해결 경북도 적극 나서야
책 생애계 육성, 1인1책 지역서점 도서관우체국 도입 촉구

II 경북도의회 5분 자유발언

경북도의회는 지난 8일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창석, 이재도, 황병직, 박차양 의원이 차례로 나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창석 의원(군위)은 대구통합공항 이전과 관련, 지난 9월 21일 4개 단체장의 합의 인본보도는 ‘합의서도 없고 공청회도 합당하지도 못한 선언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8조를 근거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으나, 주민투표가 이전지에 대한 지원 방안, 지원계획, 주민 수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투표가 본질이지만, 이번의 경우 투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통합신공항 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정치적 힘과 기교를 앞세우고,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재도 의원(포항)은 포항시 남구 SRF(생물폐기물 에너지화시설)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 2월부터 기동에 들어

간 포항시 남구의 생활폐기물 에너지화(SRF)시설이 악취와 미세먼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SRF시설이 오전음, 제철동, 청림동 등 주거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반경 4km 이내에 초·중·고등학교 14개교가 있어 어린 학생들이 환경오염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경북도와 포항시는 행정편의주의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SRF 시설의 굴뚝높이가 34m로 대기역존층 높이 이하로 배출되는 분진과 유해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150m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병직 의원(경주)은 정부의 다양한 독서진흥 정책 추진에 발맞춰, 경북 아동·청소년들의 미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우고, 도서관, 지역서점, 출판사 등이 어지는 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1인1책 지역서점 도서관우체국 도입을 도 교육청에 촉구했다.

황 의원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내 책’을 1년에 1권씩 선물해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책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자신만의 ‘내 책’을 친구와 돌려볼 수 있도록 한다면 독서역량과 사회성이 배가될 것이라



박창석 의원

이재도 의원



황병직 의원

박차양 의원

했다.

박차양 의원(경주)은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보문삼가 매각을 반대하고, 경주 문화관광 활성화 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경북문화관광공사 부채상환을 이유로 보문단지내 삼가 매각 공고를 한 것과 관련해 “보문단지 활성화 노력이 막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문화관광의 역사와 상징을 담고 있는 보문단지 내 삼가와 보문탑, 공연장을 무조건 매각하겠다는 것은 경주 문화관광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보문삼가, 보문탑과 공연장이 가진 역사와 이야기를 문화관광의 볼거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통합신공항 우보유치’ 군위군민 재결집

3일 대군민 결의대회 열어

주민·출향인에 투표 당부

대구공항 통합이전부지 선정절차가 지난 달 24일 속의역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건의한 ‘이전후보지권점(공동후보지권리) + 투표참여율’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의성군 군위군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이달중 ‘이전후보지권점 지원계획을 심의·의결’한 후 내년 1월21일 주민투표와 그 결과에 따른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화섭, 박한배)는 3일 오전 10시, 통합신공항 우보 정착을 위한 대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군민들의 ‘우보 유치’를 재결집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군위를 사라노아기마를 구 도감소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군민들의 통합신공항 유치와 관련해 이해를 돕는 한편 범 군민 결의대회 초청장과 주민투표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집집마다 배부했다.

특히 박창석(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장) 도의원은 읍·면장들과 함께 주민들과 출향인들을 찾아다니며 “소멸돼 가는 군위를 살리고, 대구·경북의 상생발전과 군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통합신공항 우보 유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대주민 홍보에 나섰다.

박 도의원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김영만 군수의 유고로 자칫 주민투표에 있어 불리한 점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계기로 군민들이 더 결집한다면 틀림없이 통합신공항 우보 유치의 희망은 분명히 있다”며 전 군민들과 출향인들의 흔들림 없는 ‘통합신공항 우보 유치’ 찬성을 당부했다.

배철한 기자 baech@idaegu.com

신공항 마지막 관문 대승적 승복만 남았다

오늘 이진지 선정 최종 투표

군위 우보·군위 소보·의성 비안 3곳 투표율·찬성률 50%씩 반영
선정위가 유치신청 심의해 확정
개표 결과 늦은 밤 폐야 나올 듯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결전의 날이 밝았다. 공청회지를 신청한 군위, 의성군 주민들이 21일 주민투표를 통해 이전 후보지 행방을 결정짓는다. 주민투표는 이날 군위와 의성에 마련된 투표소 39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두 지역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그동안 공항 유치 홍보와 투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펼쳤다. 유치운동은 주도해온 민간단체들은 각각 유치 담당위원을 설립하며 지역 유지를 자진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와 박경모 대의홍보실장은 “사전투표를 했는지 여부를 묻고 아직 투표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며 “주민들이 저력을 발휘해 투표율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신공항의성군유치위원회 권혁만 의성유치위 사무국장은 “사전투표 결과 의성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읍내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했다”며 “거소투표자에게 고려하면 주민 85% 이상은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의성군의회 지무진 의원은 “의성과 군위가 함께 발전할 수 있고 우보보다 공항 건설 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적 이익과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은 물론, 충청 세종 강원도 주민까지 이용하는 확장성도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군위군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박은표 위원장은 “민간공항의 성과를 결정짓는 수요자의 접근성에서 군위군이 월등하다. 통합신공항의 주요 수요자인 안동, 구미, 경주, 포항 등 경북 내 주요도시에서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면서 “대구·경북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지는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지역별(군위 우보, 군위 소보, 의성 비안) 투표율(50%)·찬성률(50%)을 합산한 결과로 사실상 정해진다. 가령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 후보지, 소보 또는 비안 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가 선정된다. 이후 군위 우보 단독 후보지는 군위군수 단독 유치 신청,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는 군위군수, 의성군수 공동 유치신청 절차를 거쳐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전지가 최종 확정된다.

경북도의회 박창석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어려운 지역에 한 걸음씩 해소를 해주는 만큼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미래 대구경북의 관문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라”고 이라고 말했다. 윤대식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중요한 것은 단독 후보지인 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의성 비안 중 투표결과에 따라 김영만 군위 군수가 국방부에 후보지 신청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투표결과에 따라 모두가 화합해서 대구·경북이 세계를 향해 도약하기 바란다”며 “지역경제에도 통합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개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공항 이전지 투표소는 앞서 16, 17일 진행된 사전투표와 비교하면 군위는 8곳에서 18곳으로, 의성은 18곳에서 21곳으로 늘어난다. 투표시간 역시 사전투표 때는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으나 21일에는 종료 시간이 오후 8시로 2시간 연장된다. 특히 군위·의성 읍내 투표소에서나 가능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21일에는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용지 2장에 기표한다.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용지 1장만 받는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작업이 이날 자정에 가까워져야 완료될 것으로 선관위 관계자는 예측하고 있다. 또 개표 진행 단계에 따라 득표율을 공개하는 각종 공식선거와 달리 후보지별 찬성률은 개표가 100% 완료된 이후 공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의성·군위/김현묵기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지 결정 본 투표를 하루 앞둔 20일 오후 군위군 국민체육센터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개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기 점검 및 시연을 하고 있다. /이용성기자 photokid@kbmaeil.com

박창석 도의원, 법과 절차에 따른 통합공항이전 후보지 선정 촉구

통합신공항이전특위 위원장 사퇴 의사 밝혀

경상북도의회 박창석 의원(자유한국당, 군위)은 5일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통합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정치적인 힘의 논리나 언론플레이로 서로를 자극하지 말고 법과 절차에 따라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창석 의원은 “지난 1월 21일은 주민투표와 후보지 유치 신청 이후 지금까지 이전 선정위원회가 열린 적도 이를 확정할 적도 없었는데도 투표 종료와 동시에 많은 언론에서 의성 비판, 군위 소보 지역 확정이라고 발표했고, 지난 29일에는 국방부까지 나서서 근거 없이 이에 동조하는 언론 발표를 자행하면서, 2020년 설 명절 연휴 내내 군위 군민과 출향인들은 불쾌하고 억울한 새해를 보냈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군위군은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2항과 선정기준을 준수하였고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후보를 유치 신청했는데도, 법을 무시한 언론 플레이와 여기에 동조하는 일부 인사와 정치인들로 인해 불복 프레임으로 비판과 비난을 당하는 하는 군위 군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5분발언을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주민투표는 준비과정부터 공정하지도 않았고, 군공항이전법과 속의형 시민의견 조사에 의한 주민투표 결과 후에도 주민들간의 갈등과 지자체간의 분란을 만들어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선정위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으면서, 지금의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면서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 남형기 기자

“법 따라 대구공항 이전지 선정하라”

박창석, 위원장직 전격 사퇴

박창석(군위·사진) 경북도의회이 5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통합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정치적인 논리나 언론플레이로 서로를 자극하지 말고, 법과 절차에 따라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주민투표와 후보지 유치 신청 이후 지금까지 이전 선정위가 열린 적도, 이를 확정할 적도 없는데 투표 종료와 동시에 많은 언론이 의성 비판, 군위 소보지역 확정이라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국방부까지 나서 근거 없이 이에 동조하는 언론 발표를 자행하면서, 설 연휴 내내 군위 군민과 출향인들은 불쾌하고 억울하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위군은 군공항이전법 제8조제2항과 선정기준을 준수했고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후보를 유치 신청했는데도, 법을 무시한 언론 플레이와 동조하는 일부 인사, 정치인들의 불복 프레임으로 인해 비난을 당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주민투표는 준비과정부터 공정하지 않았고, 군공항이전법과 속의형 시민의견 조사에 의한 주민투표 결과 후에도 주민들간의 갈등과 지자체간의 분란을 만들어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선정위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창석 의원은 이날 지금의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임태 기자

대구일보

신공항이전특별위원회 내려보 법·절차 따른 후보지 선정 촉구

군위출신 박창석 경북도의회이 통합신공항이전특별위원회장직까지 내용하면서 법과 절차에 따른 통합공항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5일 제31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투표준비과정부터 공정하지 않았고 군공항이전법과 속의형 시민의견 조사 등 서로 충돌된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으며 특히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모순된 기준을 마련했



박창석 도의원

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확정하는 선정위원회가 열린 적도 없는데 주민투표와 동시에 의성 비판, 군위 소보가 확정된 것으로 발표했고 지난달 29일에는 국방부까지 나서서 근거 없이 이에 동조하는 언론 발표를 자행하면서 올해 설 명절 연휴 내내 군위 군민과 출향인들은 불쾌하고 억울한 새해를 보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군위군은 군공항이전법 선정기준을 준수했고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

영해 후보를 신청했는데 불복 프레임으로 비난과 비판이 일단 폭격하듯이 이어지고 있어 5분 발언에 나서게 됐다”고 말을 이어나갔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선정위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그는 “주민투표는 준비과정부터 공정하지도 않았고”며 “군공항이전법과 속의형 시민의견 조사에 의한 주민투표 결과 후에도 주민들 간의 갈등과 지자체 간의 분란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퇴이유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마친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이 다소 아쉬움이 있어도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며 마무리해야 하는데 서로의 섣불리 틀렸다고 탓

하는 걸 보면서 특별위원장으로서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2020년 02월 06일 목요일 004면 정치

경북일보

홍정근 의원 “도민 기대 부응할 것” 포부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30일 제7차 회의를 열어 홍정근(경산)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통합공항이전특별위는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의 통합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이전 주변



로운 하늘 길을 열고 세계로 통하는 관문

지역의발전방안을 모색하기위해서 지난 2018년 구성됐다.

홍정근 위원장은 “통합공항 이전사업은대구경북의새

을 건설하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미래의 성장엔진이자 대구경북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핵심 사업”이라며 “도민의 기대가 큰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료 선배배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m

2020년 03월 31일 화요일 004면 종합

경북연합일보

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장에 홍정근 의원 선출

“대구경북 새 하늘 길·세계로의 관문
무거운 책임감 갖고 도민 기대에 부응”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30일 제7차 회의에서 경산 출신 홍정근(사진) 의원을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대구국제공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홍정근 위원장(경산)은 “통합공항 이전사업은 대구경북

향과 K-2 군공항의 통합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이전 주변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 구성됐다.

이날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홍정근 위원장(경산)은 “통합공항 이전사업은 대구경북

의 새로운 하늘 길을 열고, 세계로 통하는 관문을 건설하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미래의 성장엔진이자 대구경북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핵심 사업”이라며 “도민의 기대가 큰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료 선배배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 하겠다”고 신임 위원장으로서 포부를 밝혔다.

이인호 기자

2020년 03월 31일 화요일 002면 종합

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위 신임 위원장에 홍정근 선출

“TK 발전 전기 될 핵심사업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할 것”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30일 제7차 회의를 열고 경산 출신 홍정근(사진) 위원을 통합공항이전특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통합공항이전특위는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의 통합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이전 주변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 구성됐다.



홍정근 신임 위원장은 “통합공항 이전사업은 대구경북의 새 하늘길을 열고 세계로 통하는 관문을 건설하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미래 성장엔진이자 대구경북 발전의 전기가 될 핵심 사업”이라며 “도민의 기대가 큰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임태 기자

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위 위원장 선출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30일 제7차 회의를 개최, 경산 출신 홍정근 위원을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의 통합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이전 주변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구성됐다.

이날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홍정근 위원장(경산)은 “통합공항 이전사업은 대구경북의 새로운 하늘 길을 열고, 세계로 통하는 관문을 건설하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미래의 성장엔진이자 대구경북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핵심 사업”이라며, “도민의 기대가 큰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료 선후배 특위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용진 기자 syj-0305@hanmail.net

홍정근 도의원,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장 선임

“대구경북의 새로운 하늘길 여는 일에 책임감 갖고 최선”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30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산 출신 홍정근 위원을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의 통합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이전 주변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 구성됐다.

홍정근 위원장은 “통합공항 이전사업은 대구경북의 새로운 하늘 길을 열고, 세계로 통하는 관문을 건설하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홍정근 경북도 의원

로 미래의 성장엔진이자 대구경북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핵심 사업이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기대가 큰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료 선후배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기화 기자

홍정근 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위 위원장

지역발전 등 다각적 방안 모색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30일 제7차 회의를 열어 경산 출신 홍정근(사진) 위원을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의 통합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이전 주변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 구성됐다.

홍정근 위원장은 “통합공항 이전사업



은 대구경북의 새로운 하늘 길을 열고, 세계로 통하는 관문을 건설하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미래의 성장엔진이자 대구경북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핵심 사업이다”며, “도민의 기대가 큰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우섭기자 kws@hidomin.com

홍정근 통합공항이전특별위 위원장 선출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30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산 출신 홍정근 위원을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의 통합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이전 주변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 구

성됐다.

이날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홍정근 위원장은 “통합공항 이전사업은 대구경북의 새로운 하늘 길을 열고, 세계로 통하는 관문을 건설하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미래의 성장엔진이자 대구경북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핵심 사업”이라며, “도민의 기대가 큰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료

고 신임 위원장으로서 포부를 밝혔다.

박이우기자



日刊경북신문

2020년 03월 31일 화요일 007면 종합

홍정근, 통합공항이전특별위 위원장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30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해 경산 출신 홍정근 위원을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의 통합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이전 주변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 구

하는 관문을 건설하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미래의 성장엔진이자 대구경북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핵심 사업”이라며, “도

민의 기대가 큰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료 선후배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 하겠다”고 신임 위원장으로서 포

부를 밝혔다.



서울일보

2020년 04월 01일 수요일 016면 지역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 홍정근 위원장 선출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제7차 회의를 개최 경산 출신 홍정근 위원을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대구국제공항과 K-2 군공항의 통합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한 이전 주변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

위해 2018년 구성됐다.

이날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홍정근 위원장(경산)은 “통합공항 이전사업은 대구경북의 새로운 하늘 길을 열고, 세계로 통하는 관문을 건설하는 중대한 사업으로, 미래 성장엔진이자 대구경북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핵심 사업”이라며, “도민의 기대가 큰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동료 선후배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영길기자

영남일보

2020년 04월 01일 수요일
024면 사람과사람

경북도의회통합공항이전특별위 위원장으로 홍정근 도의원 선출



홍정근 경북도의회 의원(경산·미래통합당)이 경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홍 도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는 “통합공항 이전사업은 대구경북의 새로운 하늘 길을 열고 세계로 통하는 관문을 건설하는 중차대한 사업”이라며 “미래의 성장엔진이자 대구경북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핵심 사업인 만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특위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3. 결의안 및 공동성명서

통합공항 이전 조속추진 촉구 결의안

통합공항이전 사업은 군공항 인근의 심각한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해소하고, 내륙의 섬처럼 고립된 대구·경북의 국제 관문을 열어가려는 열망이 합해진 꼭 해결해야만 하는 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인 군공항 이전은 2016년 7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미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대구시에서 국방부로 이전사업 신청이 있었고, 2017년 2월에는 군위군 우보면 일대 및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 일대 2개소가 “예비 이전 후보지”로 결정되었다.

군공항 이전은 그동안 국방부가 주재하여 2018년 1월에는 경상북도, 대구시, 군위군, 의성군 4개 지자체 합의로 “이전후보지”를 결정하고, 2018년 10월까지 이전지를 확정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2018년 9월 국방부 장관 교체 후 뜬금없이 대구시의 이전사업비 산출을 문제 삼아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참을 수 없이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러한 차에 지난 2월 대통령이 부산에서 언급한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전 정부에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또 다른 결정을 내리는 듯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였고, 정부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 있는 크나큰 우를 범하였다.

한편 국방부가 대구시의 이전사업비 산출을 문제 삼아 이전지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군공항 인근의 심각한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해결하려는 “군공항 이전” 본연의 뜻을 망각하고, 이 기회에 국방부의 욕심을 채우려는 알뜰한 저의로서, 이미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300만 경북도민의 지역발전의 열망과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소모적인 발언을 멈추고 대구·경북의 공약사업인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하나, 국방부는 군공항 인근의 심각한 소음피해와 재산피해를 해소하는 “군공항 이전” 본연의 뜻을 망각하지 말고 당장 군공항 이전지를 결정하는데 협조하라!

하나, 경상북도는 통합공항 이전이 경상북도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경상북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피력하고, 모든 역량을 모아 통합공항 이전사업에 매진하라!

경상북도의회는 통합공항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지기 위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3월 일

경 상 북 도 의 회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조속 추진 촉구를 위한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특별위원회』,

공동 성명서

정부는 대구·경북의 사활이 걸려있는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사업을
신속하고 책임있게 추진하라!!

우리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와 『대구광역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대구·경북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대구·경북의 100년 미래가 걸려있는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사업을 조속하고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이미 전 정권에서 십여년간 정치적으로 사용되며 지역갈등과 논란 속에서 국가발전을 전인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선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해지자 영남권 5개 지자체장은 2015년1월 정부에 적극 협조하고 유치 경쟁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정부에서는 2016년6월 “김해 공항 확장”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으로 이미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대구공항 이용객은 수용한계인 375만명을 초과하여 400만명을 돌파하였고, 국제선 이용객 또한 국토부가 수립한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의 예측수요보다 무려 5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근본적인 대비책인 대구공항 통합이전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국방부에서는 신규 군공항 규모를 과대하게 설정하여, 이전부지를 개발하여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대구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이전부지를 개발하여 신규 군공항 건설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으로, 대구시의 이전사업계획에 대한 반복적인 수용불가 의견으로 군공항 이전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대구광역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와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난 십여년간 지역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해온 동남권 신공항이 더이상 민심을 흔들고 분열시키지 않도록 대통령 공약사항인 통합공항이전지 결정과 이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을 지연하는 소극적이고 부당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토부는 군공항과 통합으로 이전되는 대구신공항을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지역의 장래 항공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항공정책에 반영하여, 지역의 거점공항으로 조속히 건설하라!!

통합공항이전사업은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우리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에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와 『대구광역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밝히는 초석이 될 통합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9년 3월 21일

대구광역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영남권 신공항 정치적 이용 규탄을 위한

『대구광역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

공동 성명서

정부는 대구·경북 시·도민을 무시하는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5개 시·도가 합의·수용한
국토교통부 계획을 책임있게 추진하라!!

『대구광역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와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일부 정치권의 영남권 신공항 정치도구화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의 합의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계획한 영남권 신공항을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영남권 신공항 사업은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지역의 열악한 산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만성적인 경제침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역 최대의 상생협력 사업이자, 중차대한 국가적 사업이다.

지난 십여 년간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첨예한 지역갈등으로 신공항 사업이 담보상태에 빠지자, 2015년 1월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유치 경쟁을 중단하고 정부의 선정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하겠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2016년 6월 “김해공항 확장”을, 7월에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발표하며 오랜 논쟁을 마무리 지은바 있다.

국가와 영남지역의 공동번영이라는 대의에 따라, 어렵게 마련한 합의를 이토록 쉽게 뒤엎어 버린다면 앞으로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어떠한 지역과도 상생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국가정책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정치권은 국가정책에 대한 책임감과 5개 시·도의 합의정신, 그리고 국가와 영남지역의 공동발전을 저버리고, 재검토라는 포장으로 당초계획을 백지화하려는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반드시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김해신공항 재검토가 통합신공항 건설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끼쳐서는 안 될 것이다,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와 『대구광역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는 영남권 신공항 정책의 일방적 파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방 및 항공정책과 직결되는 국가차원의 기반시설사업인 영남권 신공항을 책임 있게 추진하라!!

하나. 부산, 울산, 경남지역 정치권은 지역갈등 조장을 즉각 중단하고, 당초 합의에 따라 계획된 영남권 신공항 사업에 적극 협력하라!!

2019년 7월 11일

경상북도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4.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 상황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26년(대구시 이전 건의서상 기간)
 - ※ 부지 선정이후 기본계획 수립시 사업기간을 재산정함
- 규모 : 15.3km²(463만평) ※ 종전부지(현K-2) 6.93km²(209만평)
- 사업비 : 9.27조원 정도 ('19.6월 사업비 재산정)
- 사업방식 : 군 · 민간 공항 동시이전 및 개항
 - 군 공항(대구K-2공군기지) : 특별법에 따른 '기부대양여' 방식
 - 민간공항(대구국제공항) : 기존부지 매각대금 + 정부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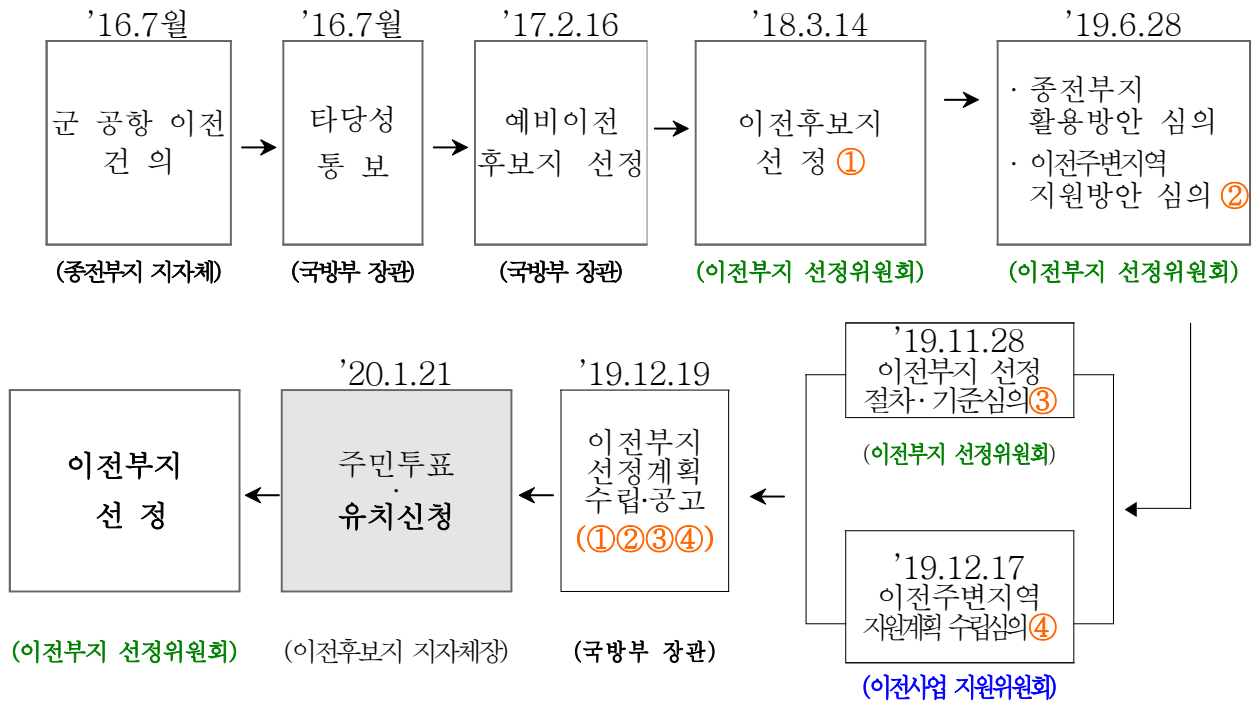
추진경과

- '14. 5. K-2 공군기지 이전건의(대구시 → 국방부)
- '16. 7. 대통령, 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 발표
- '18. 3. 이전후보지 2개소 선정(군위 후보, 의성 비안·군위 소보)
- '19. 3. 이전사업비 합의 완료(국방부-대구시)
- '19. 6~7. 이전주변지역 지원 범위 및 규모 결정
- '19. 11.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통한 투표방식 및 선정기준 결정
- '19. 12. 주민공청회/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 및 주민투표 요구(국방부)
- '20.1.21 주민투표 실시

< 주요 추진 실적 >

- ▶ 군 공항 이전사업비 : 9조 2,700억원('19. 3월)
- ▶ 이전주변지역 지원('19. 6월)
 - (지원범위) 군위군 전체 or 의성·군위군 전체 / (지원규모) 3000억원 + α
- ▶ 투표 방식 및 선정기준('19.11월)
 - (투표방식) 후보지별 유치 찬·반(군위 2표, 의성 1표)
 - (선정기준) 찬성률+투표참여율 합산결과 가장 높은 후보지를 선정
- ▶ 주민투표('20.1. 21) : 합산결과 의성비안(89.5%)—군위우보(78.4%)—군위소보(53.2%)

추진 절차



쟁점사항

- 주민투표 결과, 선정 기준에 따라 의성 비안이 가장 높음(89.5%)에도 군위군수는 '군위군민의 찬성률' 높은 '우보'만을 유치 신청

구 분	유권자 수 (명)	찬성률 (찬성자 수)	참여율 (참여자 수)	합산결과	비 고
군위우보	22,180	76.27% (13,246)	80.61% (17,879)	78.44%	
군위소보	22,180	25.79% (4,436)	80.60% (17,878)	53.20%	
의성비안	48,434	90.36% (38,534)	88.68% (42,951)	89.52%	

- 공동후보지를 선정위원회(위원장: 국방부장관)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군위(소보)·의성(비안)의 유치 신청이 각각 필요(2017, 법제처)

* 군위군은 법적 절차대로 이전지는 '유치신청' 한 후보지中 선정되는 사항이므로, '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선정'해 줄 것 주장